

碩 士 學 位 論 文

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2007年 8月 22日

全 北 大 學 校 大 學 院

法 學 科

林 在 植

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motiveless crimes and criminal profiling technique

2007年 8月 22日

全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林 在 植

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指導教授 申 洋 均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5月 15日

全 北 大 學 校 大 學 院

法 學 科

林 在 植

林 在 植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 審 全北大學校 金 熙 洙 ㉠

委 員 全北大學校 宋 文 鎬 ㉠

委 員 全北大學校 申 洋 均 ㉠

2007年 6月 18日

全 北 大 學 校 大 學 院

- 目 次 -

國文抄錄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현대의 범죄추세

제1절 무동기 범죄의 개념	4
제2절 무동기 범죄의 일반적 원인	6
1.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6
2. 신속주의	7
3. 쾌락주의	8
4. 폭력적 문화의 팽배	8
제3절 무동기 범죄의 실태	8
1. 연쇄살인	9
2. 연쇄방화	10
3. 연쇄상해	10
4. 연쇄강간	11
5. 연쇄손괴	11

제3장 경찰의 대응실태 및 문제점

제1절 과학수사 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13
1. 감식	13
2. 과학적 수사연구	14

제2절 공판중심주의와 과학수사	15
제3절 현장 검시체계상 문제점	16
1. 신속성의 문제	17
2. 전문성의 문제	18
3. 통합성 및 독립성의 문제	18
제4절 소결	19

제4장 프로파일링 일반론

제1절 프로파일링의 개념	20
1. 범죄 프로파일링	20
2. 피해자 프로파일링	20
3. 지리적 프로파일링	21
4. 범주자 프로파일링	21
제2절 프로파일링의 연혁	22
제3절 프로파일링에 대한 모델	26
1. 귀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	26
2. FBI의 범행현장 분석	28
3. Canter의 수사심리학	33
4. Turvey의 행동증거분석	36
5. 소결	41
제4절 프로파일링의 목적	42
1. 수사단계	42
2. 재판단계	43
제5절 프로파일링의 유효성	44
제6절 프로파일링의 한계	45
1. 활용상의 문제	45
2. 反 프로파일링論	46
3. 증거능력의 문제	51

제5장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활용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연혁 및 연구 동향	56
제2절 운용실태와 절차	57
1. 운용실태	57
2. 운용절차	57
제3절 프로파일링에 의한 검거사례	61
1.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61
2.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64
제4절 프로파일링 운용상 문제점	65
1. 범죄분석 요원들이 인식하는 문제점	65
2. 형사요원들이 인식하는 문제점	71

제6장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제1절 발전방안	76
1. 형사요원과 범죄분석 요원간의 이해증진	76
2. 강력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77
3. 범죄분석관 업무의 전문화와 체계화	77
4.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체 구축	78
5. 유능한 범죄분석요원의 선발육성과 교육 강화	78
제2절 결 어	82

參考文獻	84
------------	----

부록 설문지1(범죄분석요원용)	88
설문지2(형사요원용)	92

- 表 目 次 -

(표 1) 2003년도 범죄자 범행 동기별 분석	5
(표 2) 2004년도 범죄자 범행 동기별 분석	5
(표 3) 2005년도 범죄자 범행 동기별 분석	6
(표 4) 분야별 경찰관 인원 현황	13
(표 5) 과학수사 요원 경력별 인원 현황	14
(표 6)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	15
(표 7) 법정중심재판과 조서중심재판	16
(표 8) 프로파일링에 의한 정보의 유용성	44
(표 9)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45
(표 10) 범죄 분석 절차와 내용	58
(표 11) 상사의 업무지원에 대한 만족도	65
(표 12)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	66
(표 13) 상급 기관의 업무지원에 대한 만족도	66
(표 14) 형사 요원의 업무협력에 대한 만족도	66
(표 15) 임용 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	67
(표 16) 임용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68
(표 17)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8
(표 18) 보수에 대한 만족도	69
(표 19) 업무 메뉴얼에 대한 만족도	69
(표 20) 제공된 범죄 데이터에 대한 만족도	70
(표 21) 업무성과 평가에 대한 만족도	70
(표 22) 언론 보도에 대한 만족도	73
(표 23) 수사 간부들에 대한 만족도	73
(표 24) 범죄분석 요원의 업무 협력 태도에 대한 만족도	74

國 文 抄 錄

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특징적 동기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무동기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신속주의, 쾌락주의, 폭력적 문화의 팽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지며, 많은 경우에 있어 연쇄적인 모습을 띠기도 한다.

무동기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 수사기법의 적용으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는 과학수사 체제의 한계점과 공판중심주의 등과 맞물려 경찰수사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동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56년 미국의 ‘Mad Bomber’ 사건에 적용되어 그 효용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프로파일링 기법은 다양한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며, 유용성에 대한 찬반양론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1995년 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Copson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수사관들의 82.6%가 프로파일링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에 대한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프로파일링에 정확하게 맞는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프로파일링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2005년에 범죄분석요원을 특별 채용하여 일선 지방경찰청에 배치함으로써 프로파일링 기법을 범죄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서울 서남부권 살인사건, 카페여주인 살인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언론의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本稿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걸음마 단계인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문제점, 개선대책 등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자 한다.

조사에 응한 범죄분석요원이나 형사요원들 대부분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프로파일링의 결과를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일선 형사요원들의 2/3 가량이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을 전담하고 있는 범죄분석요원의 체계화·전문화와 더불어 형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내실화하여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motiveless crime and criminal profiling technique

Lim, Jae-Sik
Graduate School of Law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these 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in which specific motive can not be found or identified. Economic class polarization, quickness, hedonism and violence-oriented culture may cause this tendency, in many cases this kind of crimes take the shape of serials.

Conventional investigation techniques are not enough to solve the motiveless crimes, and some defects in scientific investigation system and transition of court-centered trial are becoming big burden for the police.

Profiling technique can be a efficient countermeasure to motiveless crimes.

The usefulness of profiling was first proved in 'Mad Bomber' case in 1956, after that diverse models are being developed, at the same time the debate on usefulness is continuing to proceed.

Research by Copson in 1995, 82.6% of responded England police officers appreciated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supplied through profiling.

On the contrary, anti-profiling academics assert that the number of crime pattern, which profiling is applicable is very low, and profiling is too difficult to systemize.

The Korean National Police began to apply profiling technique in crime investigation after stationing profilers in provincial police agencies in 2005.

Profiling technique attracted public attention after its contribution in solving south-west serial murder cases in Seoul and cafe-hostess murder case.

This dissertation is to cast some suggestions based on questionnaire analysis on the usefulness, problems and remedy measures of profiling at the initial stage of profiling in Korea.

Whils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profilers and detectives shows big expectation toward the usefulness of profiling, 2/3 of detectives who use the result of profiling in solving the criminal cases seem to be unfamiliar with procedure or contents of profiling, which is a big problem.

Therefore it is needed for upgrading the capability of investigation of Korean National Police to systemize and professionalize profilers. It is also required to build up education of detectives on profiling and to substantialize data base on violent crim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범죄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먼저 범행현장 등에서 확보된 각종 지문, 족적, 범행도구 등 유형적 자료 외에 피해자 또는 피해대상 특성, 범행수법과 같은 무형적 자료를 종합하여 범행동기, 용의사항·대상 등을 추출, 다양한 각도의 수사 선을 정하여 범죄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수사기법·절차의 활용이 기대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유형으로, 특징적 동기 없이 또는 그 확인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 대상이 특징적이지 않고, 범행대상 선정이 무차별적인 유형의 범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바 무동기 범죄(이상동기 범죄 또는 불특정인 대상 범죄라고 지칭되기도 하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신속주의, 쾌락주의, 폭력적 문화의 팽배 현상 등에 기인한다.

특히 이러한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그 사회적 파장과 공포감은 대단히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연유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 사건들은 미 헐리우드 영화 ‘양들의 침묵’, ‘본 콜렉터’(Bone collector) 등과 같이, 종종 범죄수사 추리물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하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다.

프로파일링이란 위와 같이 특별한 범행동기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사선 설정 및 용의사항·대상자 확정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사건이나 연쇄 범죄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또는 범행 패턴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이를 개인 동일성 식별 증거 또는 동일범에 의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을 위한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수사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의 활용은 1956년 미국 뉴욕시의 미치광이 폭파범 사건 - 일명 ‘Mad Bomber’ 라고 하는 죠지 멧스키 사건 - 에 있어서 심리학자인 Brussels 박사의 용의자에 대한 묘사가 정확히 일치했던 것에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¹⁾

이후 차차 그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 FBI의 범죄현장분석, Canter의 수사심리학 그리고 Turvey의 행동증거분석 등 프로파일링의 모델이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적인 프로파일링은 고비용이 소요되는 고급수사기법의 일종이지만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反프로파일 학자인 Campbell 교수는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체계화 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거나 비과학적이고 추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등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²⁾

그러나 Copson 등에 의해 CTN(Coals to Newcastle) 프로젝트라는 명명하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러의 결과를 활용하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응답자의 82.6%가 프로파일러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프로파일링 업무를 담당할 범죄분석요원 16명을 특채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30명의 범죄분석요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2004~5년 서울 서남부권에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한국 경찰의 과학수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1) B. Innes, Profile of a criminal mind. (London: Amber books, 2003) pp.47-53.

2) C. Campbell, "Portrait of a Mass Killer", Psychology Today 9, February 1976, pp.110~119.

3) G. H. Gudjonsson & G. Copson, "The role of expert in criminal investigation", in Offender Profiling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J. L. Jackson & D. A. Bekerian,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6) pp.66-67.

그러나 우리나라엔 아직까지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이나 문제점, 개선책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本 연구는 최근의 범죄추세에 대응하여 과학 수사기법의 하나로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된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들과 직접 강력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형사들은 유용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다.

국내외의 각종 서적, 연구논문, 정부 발행 각종 간행물, 보고서, 인터넷 등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무동기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해서 경찰의 수사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범죄대응 방법의 일환인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 보았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프로파일링 운용 시스템상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을 파악하였으며, 프로파일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범죄분석요원과 프로파일링 결과를 수사에 활용하는 수사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프로파일링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현대의 범죄추세

제1절 무동기 범죄의 개념

인간행동, 특히 모든 범죄행동에는 필연적으로 원인이 되는 동기가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는 소위 「무동기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무동기 범죄란 일반적으로 말해 보복, 利慾(금품), 이성 관계 등의 특정한 이유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말한다.⁴⁾

우리나라에서도 아래의 (표1) ~ (표3)에서 보듯이 범죄의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단순히 현실에 불만에 기인하는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무동기 범죄는 특정한 범죄유형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살인, 방화, 강간, 상해, 손괴 등의 연쇄범의 형태로 자주 발생한다. 무동기 범죄는 무엇보다도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누구나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특히 범행대상이 어린 아이, 여성, 노인, 성매매 종사자, 심신 미약자 등 상대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하거나 범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범죄의 예방과 검거가 쉽지 않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를 집중 분석하는 각종 언론매체의 특별프로그램 제작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범죄예방법 및 신속한 검거 작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 최규범, “연쇄범죄와 프로파일링 방법론 연구” 경찰학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12호) (경기도: 경찰대학, 2006) p.66

(표1) 2003년도 범죄자 범행 동기별 분석⁵⁾

단위: 인원

동기별 죄종별		이 욕	사행심	보 복	가정불화	호기심	유 욕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기타
살인	764	53	·	69	76	1	4	280	30	9	242
강도	4,873	2,637	33	63	15	14	29	593	26	27	1,436
강간	3,664	218	4	9	4	130	187	1,348	7	61	1,696
방화	1,048	46	·	47	105	2	1	399	131	9	308
폭력	294,211	12,282	169	1,422	6,765	242	397	179,180	5,139	5,085	83,630

(표2) 2004년도 범죄자 범행 동기별 분석⁶⁾

단위: 인원

동기별 죄종별		이 욕	사행심	보 복	가정불화	호기심	유 욕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기타
살인	1,200	13	3	71	122	·	·	442	59	2	488
강도	6,466	1,944	61	68	7	50	50	911	36	10	3,329
강간	6,481	47	5	19	10	273	344	2,527	22	48	3,186
방화	1,546	24	3	65	155	24	5	612	194	20	444
폭력	452,553	3,652	822	2,929	8,444	541	596	273,954	7,849	3,416	150,350

5) 경찰청, 2003 범죄분석, pp.892-893.

6) 경찰청, 2004 범죄분석, pp.926-927.

(표3) 2005년도 범죄자 범행 동기별 분석⁷⁾

단위: 인원

동기별 죄종별		이 욕	사행심	보 복	가정불화	호기심	유 욕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기타
살인	1,178	16	·	94	117	2	·	420	53	2	474
강도	5,084	1,486	101	39	20	32	56	688	31	8	2,623
강간	6,667	42	3	14	10	241	293	2,681	10	47	3,326
방화	1,616	12	3	69	123	49	5	675	181	18	481
폭력	435,765	2,849	646	2,436	7,069	603	710	260,440	6,870	3,175	150,967

제2절 무동기 범죄의 일반적 원인

1.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계층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남미나 필리핀과 같이 극단적인 수준으로 양극화가 일어난 국가에서 무동기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무동기 범죄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동성과 우발성은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출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계층 양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우려가 많이 제기되는 것도 이로 인한 잠재적 폭발성이 심각한 문제로 돌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부의 균형적 배분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고, 이들이 점차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개인, 또는 본인이 아는 절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

7) 경찰청, 2005 범죄분석, pp.926-927.

1993년 7월부터 94년 9월 사이 충남 대전, 경기 성남, 전남 영광 등지에서 조직원 및 납치한 부부, 부녀자 등 5명을 살해한 이른 바 지존파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남긴 노트에는 ‘가진 자들은 시운을 잘 타고나 평생 힘 안 들이고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반면 가진 것 없는 한평생 소와 말처럼 일만하고 죽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생활 한 번 못 해보고 일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정한 세상’이라며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⁸⁾

2. 신속주의

인내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무동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동기범죄는 상당수가 충동과 우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욕구와 불만, 화를 참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충동과 우발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면, 2004년 1월에 한 30대 남자가 일본 사람에게 맞았다고 분풀이로 무고한 일본인 초등학생에게 흥기를 휘두르는가하면, 같은 해 8월에는 33살 남자가 평소 사이가 나쁘던 노래방 주인을 찾아갔다가 자리에 없자 화끈에 길 가던 행인을 칼로 찌르는 사건도 있었다.⁹⁾

모든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범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이러한 행위가 나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무동기 범죄가 많지 않았던 것은 사회의 발전 속도가 느리고 새로운 것보다는 전통적인 것들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회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18세기 이전에 100년간 이뤄낼 발전을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루어 낼 정도로 급속한 변화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사회적 변화는 개인의 신속

8)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의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제4권, 2004년) p.1658

9) 최규범, Op.cit p.67

주의, 다시 말해 ‘빨리 빨리’로 불리는 조급성을 불러 일으켜 우발적으로 자신의 분노성을 주체하지 못해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3. 쾌락주의

윤리적, 도덕적 삶을 포기하고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문화가 널리 팽배하면서 목적과 가치관을 상실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러한 몰가치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방향을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할 경우 범죄를 쉽게 선택하게 되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한다.¹⁰⁾

4. 폭력적 문화의 팽배

폭력적인 문화는 범죄현상을 심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과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학의 분야에서 미디어와 범죄의 관련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도 사회적 학습에 의한 폭력성의 증대라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TV나 인터넷, 영화, 게임과 같은 소위 4대 매체에서 설 새 없이 폭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폭력의 일상화 내지는 자아와의 동일화가 이루어지며, 이것이 동기가 없는 범죄를 만들어 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¹¹⁾

제3절 무동기 범죄의 실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동기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살인, 방화, 강간 등 성폭력, 상해, 손괴 등이 있다. 이들 범죄는 보통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연쇄범의 성격을 가진다.

10)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의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제1권, 2004년) p.7

11) Ibid. p.8

1. 연쇄살인

1986년부터 시작된 14세 여중생에서 71세 노인까지 부녀자 10여명을 동일한 수법(스타킹, 브라우스 등을 이용하여 목 졸라 죽임, 성폭행 후 살해, 음부난행)으로 살해한 화성연쇄살인사건, 1999년부터 2000년 4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 대전 등지에서 23건의 강도살인으로 철강회사 회장 부부 등 9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정두영 사건¹²⁾, 2004년 7월 21명의 부유층 노인과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살해하다 체포된 유영철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사회에 대한 불만표시의 수단으로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히 이어졌다. 2003년 6월에는 서울 지하철 회현역 승강장에서 승차를 기다리던 여성을 등 뒤에서 노숙자(49세)가 갑자기 손으로 세계 떠미는 바람에 피해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는 노동일을 하는 50대 남성이 열차가 진입하자 20대 여성과 30대 남성 등 2명을 한꺼번에 뒤에서 밀어 이들 셋이 선로로 떨어졌으나 열차가 급제동하여 남자 2명은 무사히 구조됐고 여자는 부상을 입은 살인미수사건도 발생하였다.

또한 2003년 8월에는 경기도 이천 경찰서 소속 노모 의경(22세)이 생후 5개월 된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여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숨진 아기의 부모와 범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며 범행동기에 대해 범인은 “술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3년간 쇠파스를 이용해 모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정남규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며 “지금도 살인 충동을 느끼는데 독방에 갇혀 있어 살인하지 못해 답답하고 조급하다”말해 세상을 경악케 한 바 있다.¹³⁾

12)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의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제4권, 2004년) pp.1599-1601.

13) 박주연, “연쇄살인범 당신 가까이에 있다”, 인테넷 경향신문 미디어 칸(2006.8)

결국 이들 사건의 범인들에게는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단지 범인들의 극단적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연쇄방화

2002년 10월말 경기도 군포시 주택가에서는 40대 용의자가 주차된 차량에 종이 박스를 모아 불을 지르는 수법으로 다른 차량과 창고, 빈 건물 등을 대상으로 몇 개월 동안 14차례나 방화하다가 검거되었다. 2003년 3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황모씨(23)가 주택과 대형할인점 등 10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렀고 그 와중에 황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린아이 1명이 숨졌는데, 범인은 단지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연쇄방화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003년 2월 한 달 동안 부산의 동래에서는 20여건의 자동차 연쇄방화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찰에 구속된 범인 황모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방화 순간의 쾌감 때문”이라고 밝혔다.¹⁴⁾

3. 연쇄상해

주로 인적이 뜸한 시간과 장소에서 여성이나 어린아이, 노인, 취객 등 손쉬운 범행목표물을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체상해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예컨대 2006년 1월 한 달 동안 서울의 대림, 구로디지털단지, 숙명여대역, 신풍역, 구로공단역 등에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이른 아침 출근시간에 젊은 여성들만을 골라 갑자기 칼로 허벅지를 찌른 뒤 달아나는 사건이 5건이나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들 사건은 모두 지하철역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범인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14) 박철현,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 추정: 동래연쇄방화사건의 사례”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2004) p.62

한편 2005년 5월 부산에서는 만취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가 준 홍삼 종류의 음료를 마신 후 중태에 빠졌으며 검사 결과 음료수에는 제초제 종류의 독극물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1월 부산 해운대의 한 주점 화장실 앞에서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30대 남성 피해자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20대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세 차례 찌른 후 달아난 사건도 발생하였다.¹⁵⁾

4. 연쇄강간

1996년에는 20대 범인 2명이 출퇴근을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들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는 등 직장여성과 가정주부 36명을 상대로 강간한 범인들이 체포되었다.

또한 1999년 말부터 2000년 6월까지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여고생과 여대생 85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1999년 11월부터 1년 동안 원룸촌에 혼자 사는 부녀자 1백 여명의 집에 수도검침원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침입,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범인이 체포되기도 하였다.¹⁶⁾

5. 연쇄손괴

상기한 범죄들보다 사회적 이목은 덜 집중시키지만 우리 주변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불특정인 대상범죄로는 채물손괴가 있다. 예컨대 2005년 11월 서울 응암동의 한 주택가에서는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 20여대가 커다란 돌맹이로 심하게 파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인 28세 정모씨는 주민의 신고로 곧 경찰에 검거 되었는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지갑을 잃어버려 기분이 나빠서 화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다.¹⁷⁾

15) 최규범, Op.cit. p.71

16) 경찰청 내부의 수사기록을 참조

17) 경찰청 내부의 수사기록을 참조

이 같은 범죄는 ‘술김에’, ‘부부싸움 후’, ‘잘 사는 자들이 미워서’ 등 다양한 화풀이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로 야간에 외제 차량이나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손쉬운 대상으로 하여 타이어를 칼로 찢거나 흙집을 내기도 하며 사이드 미러를 연쇄적으로 파손시키기도 한다.

제3장 경찰의 대응실태 및 문제점

제1절 과학수사 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1. 감식

현대의 범죄는 지능화·흉포화·기동화 등의 특성상 종래 진술 위주의 수사가 인권침해의 여지와 진술의 불확실성, 번복 등으로 사건해결의 혼미를 초래하여 국민으로부터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된 점을 인식할 때 과학의 확실성과 유용성을 감식에 적용하는 과학적 감식이 수사력 강화의 첩경이다.

현장감식은 아직 감정에 이르기 전에 범행이 행하여진 장소나 범행의 의심이 있는 장소에 임하여 현장 및 사체의 상황과 유류된 자료에 대한 관찰, 사진촬영, 지문채취 등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며, 범죄와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자료를 합리적으로 수집·채취하여 수사 자료로 하고, 범인을 검거한 후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수사 활동이다.

(표4) 분야별 경찰관 인원 현황¹⁸⁾

2007. 3. 30 현재

경찰관 총원(명)	수사경과자	과학수사 요원
96,010	20,705명 (21.5%)	1,160명 (1.2%)

18) 경찰청 총무과 내부자료

(표5) 과학수사 요원 경력별 인원 현황¹⁹⁾

2007. 3. 30 현재

경력 총원(명)	1년 미만	1~5년	5~10년	10년 이상
1,160	235	667	219	39

그러나 (표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경찰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경과 경찰관은 20,705명이며, 그 중에서 과학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1,160명으로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과학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중에서도 5년 미만의 경력자가 902명으로 78%에 달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감식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표5)참조.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사회의 각 분야가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선 법과학적 감정업무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서 이 점 역시 과학수사 분야 발달에 장애가 되고 있다.²⁰⁾

2. 과학적 수사연구

일반적으로 사건현장의 증거채증은 경찰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증거채증 이후의 증거물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및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동 연구소의 지방분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처리건수는 증가일로에 있다.

19) 경찰청 과학수사과 내부 자료

20) 김상철,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능력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pp.46-47.

(표6)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²¹⁾

(단위: 건)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건수	78,170	79,910	89,703	105,494	112,479	130,671	175,277	210,500	220,698	208,719

이처럼 많은 건수의 감정을 한정된 인원의 감식요원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일선 경찰서에서 수집된 증거물의 감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현대범죄의 신속화·지능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쇄강간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증거물이 현장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 에 불과한 경우,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보통의 감정기간은 1개월 이상, 긴급감정의 경우에도 약 3-4일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피의자 긴급체포 후 36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경찰로서는 너무나 큰 압박감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공판중심주의와 과학수사

공판중심주의란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공판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가 행하여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심증이 형성될 것을 요구한다.²²⁾

특히 최근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를 선언하면서 ‘조서 재판’으로 불리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를 진행해 기존의 조서, 자백위주의 수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태를 감안한다면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다.²³⁾

21) 경찰청, 경찰백서(2006), p.267

22) 이재상, 형사소송법(서울: 박영사, 2002) p.349

23) 조선일보 (2006. 2. 8)

(표7) 법정중심재판과 조서중심재판

법정중심 재판	구분	조서중심재판
피고인·당사자가 자기 주장 자유롭게 설명	재판진행방식	질문에 피고인·당사자는 ‘예’, ‘아니오’로만 답변
상대적으로 장시간	재판소요 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
검사·변호사 법정공방 대비해 재판준비 꼼꼼히 해야	검사·변호사 업무변화	서류 준비로 재판 준비 끝
법정시설, 법정인력사정등 시기상조	검사·변호사 기존입장	재판이 효율적이다
공소장만 제출하고 차례로 증거서류 제출	검찰수사 자료	공소장등 수사기록 미리제출
서명된 조서라도 피고인이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어	조서증거 능력	혐의를 부인해도 조서는 이미 판사의 심증형성에 기여
피고인·당사자들 불만 줄고 재판 신뢰도·만족도 증가 전관 예우·유전무죄 논란 감소	기대효과	자유발언 적은 피고인·당사자들 불만 높고 판사·검사·변호사 유착 가능성

최근 e-메일 등 통신기법이 발달하면서 늘어나는 디지털 형태의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등 과학수사로 강제수사의 공백을 메우자는 제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3절 현장 檢視체계상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대체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이 출동하여 시체를 조사하고, 의사가 현장 또는 안치실에서 검안을 하며, 타살이거나 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검사가 검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건이 조금만 복잡·미묘해지면 이러한 현장검시체계는 문제점을 나타내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1. 신속성의 문제

정확한 검사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부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차의 중첩과 복잡함으로 인해 빠르면 1일 통상의 경우 2-3일이 소요된다. 즉 검시결과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검시의 책임자인 검사는 단독으로 부검을 시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시체에 대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검증의 일종인 부검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검의 결정을 내리는 검시의 책임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지 못한 경우, 꼭 필요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부검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도 부검을 시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부검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검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신속한 부검에 장애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전문 의사들이 줄이어 이직, 살인 등 강력사건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국과수의 부검의 정원은 모두 21명이지만 잇단 이직으로 현재 66.6%인 14명만 근무하고 있다.

부검의들의 이직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때문으로 보여진다. '06년 국과수 부검의들은 평균 325구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올해는 1인당 440구 부검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10년 경력의 부검의 연봉은 5900만원 정도로, 같은 경력의 국립의료원 의사 6500만원, 경찰병원 의사 7200만원보다도 적다.²⁴⁾

이처럼 부검의의 부족에 의한 부검의 지연은 곧 수사 단서 제공의 지연을 의미함고 동시에 수사 활동의 지연을 초래한다.

24) <http://kr.blog.yahoo.com/ihyl6374/2326>

즉 부검을 통하여 자타살의 구분, 사망의 원인, 사망시각 추정, 사망 직전의 취식물 내용, 사용된 흉기의 종류 등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수사단서이기 때문이다.

2. 전문성의 문제

부검 전 단계, 즉 사인이나 사망의 종류 등 죽음을 둘러싼 중요한 사실관계를 일차적으로 가리는 과정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사인확인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라도 검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검시의사의 자격기준이 따로 정해 있지도 않다.

이처럼 부검 전 단계까지의 우리나라의 검시는 검찰의 책임하에 경찰 및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중 누구도 검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상 하나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²⁵⁾

3. 통합성 및 독립성의 문제

현재의 검시제도는 수사와 부검과정이 유리되어 있다. 변사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그들에 의하여 선정된 검안의나 부검의가 검안, 부검을 한다는 것은 검시가 수사에 종속됨으로써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즉, 수사관과 검시의, 수사관과 부검의, 검시의와 부검의 사이에는 정보가 단절되어 있다. 공무원 신분인 수사관과 민간인인 의사 사이에 원활한 협조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범인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관과 사인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

25) 권일훈, “사인확인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월간수사연구(2002. 10) pp.10-15.

현장검시의와 부검의는 아무런 정보교환이 없다. 이를 종합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검찰도 그러한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처럼 검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책임을 지거나 지울 수도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²⁶⁾

제4절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의 범죄 추세는 연쇄살인, 연쇄강간, 연쇄방화 등과 같이 무차별적이고 무동기적인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사이코패시(Psychopathy) 성향의 범죄자들이 수사관만큼이나 과학수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범인의 범죄사전 준비, 현장훼손 등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범의학적, 법과학적 단서는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법과학적 증거 수집관련 전문교육기관의 부재나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 분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과학수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법감시의 주체를 검사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구조와 공판중심주의를 천명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도 경찰수사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존의 관행에 따른 수사기법만으로는 무동기 범죄 특히 사이코패시 성향의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경찰의 부담이자 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바로 프로파일링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프로파일링의 개발목적은 기존의 피해자에 초점을 둔 수사 접근법으로는 범인을 가려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²⁷⁾

26) 강신몽, “우리나라 현장검시의 개선점”, 월간수사연구(2000.10) pp.10-14.

제4장 프로파일링 일반론

제1절 프로파일링의 개념

프로파일(profile)이란 용어는 사람의 옆모습 또는 외모, 성격과 활동상황에 대한 개요를 의미한다.²⁸⁾ Webster 사전에는 ‘피해자의 가장 현저한 특징들을 간단하게 개괄하는 짧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傳記’²⁹⁾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프로파일을 수행하는 작업을 프로파일링이라 하며, 프로파일링은 크게 범죄 프로파일링(crime profiling), 피해자 프로파일링(victim profiling),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범죄 프로파일링(crime profiling)

범죄 프로파일링이란 어떤 범죄에 관하여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 범죄의 다양한 특징을 알기 쉽게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 프로파일링은 ‘범죄 유형학’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유사한 특징을 가진 범행을 집산화하여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간결한 이해와 설명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³⁰⁾

2. 피해자 프로파일링(victim profiling)

범죄발생에는 피해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정한 역할을 하기도

27) G. H. Gudjonsson & G. Copson, "The role of expert in criminal investigation", in Offender Profiling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J. L. Jackson & D. A. Bekerian, (ed) (John Wiley & Sons : New York, 1996) pp.67-68.

28) 이승녕 등 5인 공저. 국어대사전(1990) p.2182

29) "a set of data often in graphic form portraying the significant features of something <a corporation's earnings profile>; especially : a graph representing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exhibits traits or abilities as determined by tests or ratings in <http://www.m-w.com/dictionary/profile>

30) T. D. Miethe, R. C. McCorkel, S. J. Listwan. Crime Profiles(California: Rpxsburry 2006) p.85

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살인 피해자는 가까운 지인 또는 친구에게 살해되고 낯선 사람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유영철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특정직업(출장 마사지)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피해자의 특징은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대상으로 삼기에 용이한 점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종종 범인에게만 의미 있는 상징성을 가지기도 하는데, 예컨대 살인자에게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거나 가해자의 환상에 맞아떨어지는 이상형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범인 검거의 단서가 되는 동시에 차후 유사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³¹⁾

3.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

이는 연쇄범죄의 경우와 같이 여러 장소에 걸쳐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범행 장소의 공간적 분포 형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 분석하여 규칙을 찾아내어 범인의 집이나 직장 등 같이 범인이 가장 있을 법한 장소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기법을 말한다.

성공적인 지리적 위치 추정을 통해 수사관은 범인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된다.³²⁾

4.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일반적인 의미에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또는 심리학적 프로파일링(psychological profiling)을 말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란 범죄를 저지른 범죄현장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성격유형을 파악해내며 다른 범죄자들과의 유사성을 밝힘으로써 용의자를 찾아내는 수사기법의 한 가지이다.³³⁾

31) 최규범, Op.cit. p.88

32) B. Innes, Profile of a criminal mind. (Amber books : London, 2003) p.223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범죄현장은 범인의 성격을 반영하며, 특정한 성격유형은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범죄현장에 나타난 범죄자의 심리상태, 특징, 범죄수법 등을 조사하여 범죄자의 형태와 윤곽을 추론해가는 범죄수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행동기 등 그의 심리상태를 밝히는데 특히 주목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도 한다.³³⁾

제2절 프로파일링의 연혁

프로파일링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프로파일링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로파일링에 대한 최초의 교과서는 1400년대 말경에 나온 ‘The Malleus Maleficarum’이라는 것으로, 이는 마녀사냥꾼들을 위한 전문 안내서이며 마녀에 대한 다양한 프로파일들이 제공되었으며, 카톨릭 교회에서 마녀를 정확히 구분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한다. 또한 1700년대 말에 Franz Gall이 추론을 통해 사람의 심리학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골상학을 소개했다. Gall에 따르면,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과 성격은 뼈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고, 뇌의 특정 영역은 다른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뼈의 윤곽은 개인 성격의 특정 부분을 말해준다고 하였다. Gall의 골상학은 범죄적인 성향도 포함하였는데, 그는 뼈의 형태를 통해 살인자를 구별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19세기 후반 인종, 나이, 성별, 신체적인 특징, 교육정도, 지리학적 요소 등을 통한 범죄인 유형 분류를 소개한 Lombroso의 ‘The Criminal Man’이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여기에서 Lombroso의 목적은 범죄행위의 기원과 동기를 찾고자 함이었다. Lombroso의 가장 유명한 개념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범죄인 하위유형을 결정짓는 18개의 신체적인 특성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들이 그들의 경향을 범죄로 이끈다는 것이다. 다시 19세기 말경에 Ripper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프로파일링이 재차 거론되었는데, George Philips라는 사람은 범죄인의 심리학적 기질을 통찰하기 위

33)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서울: 북카페 2006) p.17

34) 최규범, Op.cit. p.87

해 다양한 범죄현장을 재구성하거나 피해자의 상처를 묘사하였다. 또한 그는 살인 피해자의 상처 유형을 신중히 조사함으로써, 살인범의 행동과 성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프로파일링이 실질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40~50년대 사이 뉴욕에서 역, 극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폭발물을 설치하여 많은 사상자를 유발시킨 ‘Mad Bomber’ 사건에 대한 James A. Brussels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³⁵⁾

범죄현장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과 용의자의 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Brussels 박사는 “범인이 뚱뚱하고, 중년이며, 독신이고, 남동생 혹은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고 산뜻한 더블 양복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결과 놀랍게도 Brussels 박사의 예측이 일치하였다.³⁶⁾

범행동기나 피해대상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기존의 수사방법을 적용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웠던 이 사건의 해결을 통하여, 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자료의 상당한 정확성을 확인하였고 유효한 수사기법으로 부각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로파일링 기법의 도입과 활용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해서 주도하게 되었는데, 1972년 버지니아주 Quantico에 위치한 FBI academy 내에 행동과학부(BSU: Behavioural Science Unit)라는 프로파일링 전담부서를 설치, 프로파일링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했다.

새로이 창설된 행동과학부가 검증받을 기회가 왔다. 1973년 6월, 미시간에서 몬태나의 보즈먼 부근으로 가족과 함께 캠핑왔던 7세 소녀 수전 제이거가 텐트에서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35) 임준태, 강력범죄에서의 범인상 추정기법(Criminal Profiling)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제19집, 2003) pp.162-167.

36) J. L. Jackson & D. A. Bekerian, Offender Profiling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 New York, 1996) pp.1-2.

범인에 대한 심리학적 추정의뢰를 받은 테텐과 멀래니는 자신들이 준비한 방식으로 범인을 추정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결론은, 범인은 그 지역에 혼자 사는 백인이며 밤에 산책하다 우연히 이 가족의 텐트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괴된 소녀는 이미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즈먼의 FBI 요원이던 피터 던바는 이들이 추정한 범인의 특성과 일치하는 용의자 1명을 찾아냈다. 베트남전 참전 병사인 23세의 데이비드 마이어호퍼였다. 던바의 보고에 따르면 ‘차림새가 단정하고 정중하며 매우 지적인’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물증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1974년 1월에 마이어호퍼의 구혼을 거절한 젊은 여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번에도 마이어호퍼가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는 자진해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와 자백약³⁷⁾ 테스트를 받았지만 둘 다 통과했다. 그러자 그의 변호사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테텐과 멀래니는 이런 테스트들이 보통 사람에게만 소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신병자들은 범죄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자신의 자아와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이어호퍼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한 편 두 사람은 범인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의 흥분을 되새기는 그런 유형이라고 추정했다. 그래서 던바는 제이거의 집 전화에 녹음기를 설치하라고 충고했다.

예상대로 수전이 유괴된 지 1년이 되던 날 제이거 부인은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남자는 수전이 아직 살아있다고 했다. 수전은 지금 유럽에 있으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이 더 잘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발신자 추적을 통해 전화를 건 남자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FBI의 목소리 분석 전문가가 녹음된 전화 목소리가 마이어호퍼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37) 신경증 환자나 범죄자 등의 억압된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최면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몬태나에서는 이것이 용의자의 집을 수색할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했다.

멀래니는 마이어호퍼가 제이거 부인과 대면하면 평정심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이어호퍼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했다. 제이거 부인을 만나는 동안 마이어호퍼는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런데 제이거 부인이 미시간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는 트레이비스라고 밝힌 남자가 걸어온 수신자 부담 전화였다. 제이거 부인은 그의 목소리가 마이어호퍼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던바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마이어호퍼의 집을 수색한 끝에 실종된 두 사람의 유해를 찾아냈다. 마이어호퍼는 2건을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그 외에도 또 1건의 소년 살인 사건도 실토했다. 그는 체포된 다음 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³⁸⁾

수전 제이거 사건의 해결은 전 미국 경찰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폭력범죄분석센터(NCAVC, 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내에서 범죄수사분석프로그램, 방화·폭파사건 수사서비스, 폭력범죄자 체포프로그램의 세부부서를 갖는 프로파일링 행동평가과로 조직개편과정 등을 거쳐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는 FBI 외에도 기타 연방 및 각 주의 수사기관에도 독자적인 프로파일러를 양성,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편, 1992년 영국의 Liverpool 대학에서는 David Canter 교수가 운영하는 Investigative Psychology Research Group에 의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과정에서 Geographic Profiling 으로 불리워지는 방법들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7년경에는 프리랜서라 불릴 수 있는 수많은 프로파일러들이 Web-site에 나타나기 시작했다.³⁹⁾

38) B. Innes. Profile of a criminal mind. (Amber books : London, 2003) pp.67-71.

39) 임준태. Op.cit. p.167

제3절 프로파일링에 대한 모델

이 부분에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모델을 검증해보고, 각 모델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봄으로써 당면한 사건에 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귀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후, FBI의 범행현장분석, Canter의 수사심리학 그리고 Turvey의 행동증거분석의 순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귀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

가. 귀납적 프로파일링

이는 이미 확인된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행한 다른 범죄자의 특성과 연계하여, 평행하게 경험적이고 유형론적 추론에 의하여 범인의 성격, 기타 제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 프로파일링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최초의 행동적 특성들 그리고 이전에 연구되었던 다른 범죄자들과 공유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들로부터 개별범죄자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프로파일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 여자가 빌딩의 꼭대기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 머리에 둔기로 인한 상처를 입었고, 복부에는 자창, 목이 묶였고, 그녀의 속옷으로 얼굴이 덮여 있었다.

귀납적 프로파일링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둔기에 의한 상처를 입히는 범죄자의 85%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범행 중 결박하는 범죄자의 75%는 25세에서 31세 사이의 나이이고, 4톤 트럭을 몰고, 백인이며 지능이 높다. 따라서 범인은 이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모집단의 일부분이므로 범인은 백인이고 나이는 25~31세, 어머니와 같이 살고 4톤 트럭을 운전한다.⁴⁰⁾

귀납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전문기술과 지식이 없어도 되고 유사한 범죄현장으로부터 추론을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료 자체가 한정된 인구 샘플로부터 일반화되었다는 것과 귀납적 프로파일들이 단지 알려진 그리고 체포된 범죄자들로부터 수집되어 제한된 자료들로부터 일반화된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⁴¹⁾

나. 연역적 프로파일링

이는 범죄현장 사진에 담긴 것과 같은 법과학적 증거의 해석, 검시보고서, 검시사진 그리고 가해자 연구를 통한 특정한 범죄자의 범행에 대한 완벽한 재구성, 이러한 개인의 패턴으로부터 범죄자의 성격, 수, 감정과 동기를 기술하는 것이다.⁴²⁾

이 논리는 다음과 같다.

얼굴과 가슴에 다발성 자창을 입은 피해자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소량의 혈흔이 사건현장에서 있었고 피해자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약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타이어 흔이 발견되었다. 연역적 프로파일링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범인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이동성이 좋고,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제2의 현장일 수 있다. 범인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에 수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현명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40) 경찰청, 범죄행동분석 매뉴얼(서울: 대한 P& D, 2006) p.179

41) 김시업, Op.cit. p.16

42) <http://faculty.ncwc.edu/toconnor/401/401ects.htm>

범인의 특징과 형태를 추론하는데 쓰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카테고리
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법과학적 증거

프로파일러는 범죄현장 특징과 행태를 지지해주는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집된 모든 증거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 범죄현장 특성

법과학적 증거물을 충분히 분석하고 논리적 재구성을 통해 범죄현장
특성을 생각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변수가 있을 때 변
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들은 동기, MO⁴³⁾, 시그너처⁴⁴⁾ 등에 대한 추
론을 가능하게 한다.

③ 피해자

피해자 특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 피해자를 프로파일링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⁴⁵⁾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특징적 행동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을 확인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 또한 개별 범죄자의 동기를 매우 정확하
게 지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다양한 기술들이
각 파트의 수사팀에게 요구되며 매우 집중된 과정이기 때문에 극도로 피
곤해 질 수 있으며, 어떤 범죄자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⁴⁶⁾

2. FBI의 범행현장 분석

FBI에서 실제로 범죄프로파일링을 담당했던 Douglas, Ressler, Burgess
와 Hartman등은 범죄프로파일링 전략을 크게 5단계로 나누었으며, 마지
막 6번째 단계에서 정확하게 용의자를 체포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

43) Modus Operandi 즉 범행수법을 뜻함

44) Signature 즉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인 어떤 것’을 말한다.

45) 경찰청. Op.cit. pp.183-184.

46) 김시업. Op.cit. pp.16-17.

다.⁴⁷⁾

가. 자료 수집(Profiling Inputs)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 증거, 범죄 현장 사진, 부검보고서 및 사진, 목격자 진술,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배경정보, 경찰보고서 그리고 범죄 전·중·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해서 범죄에 대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프로파일러는 가능성 있는 용의자에 대해 언급하기를 원해서는 안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자료는 프로파일이 편파적이거나 시기상조적인 방향으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⁴⁸⁾

이 단계는 이후 다섯 가지 단계의 기초가 되며,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나중에 실시하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나. 수집된 자료의 정리(Decision Process Models)

이 단계에서 프로파일러는 범죄행위의 몇 가지 차원에 따라 필요한 의문과 패턴을 체계화하게 된다. 즉, 전 단계에서 모아진 모든 정보를 논리정연하고 이해가 가능한 패턴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통해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 살인의 형태는 어떠한가?
- 범죄의 일차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 성적, 재정적, 개인적 혹은 정서적 장애의 증후는 나타나 있는가?
- 피해자가 경험한 위험수준은 어떠한가?
- 범죄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경험한 위험수준은 어떠한가?
- 살인 전과 후에 순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47) http://www.crimelibrary.com/criminal_mind/profiling/profilings2/1.html?sect=20

48) <http://www.criminalprofiling.ch/introduction.html>

- 얼마나 오랫동안 범죄가 이루어졌는가?
- 범죄는 어떤 장소에서 발생했나?
- 살인이 발생한 장소에서 사체가 발견되었는지 아니면 사체가 옮겨졌는가?
-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연루되었는가?
- 이 살인은 연쇄살인범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다. 범죄의 재구성 및 평가(Crime Assessment)

전 단계에서 얻어진 결과에 기초해서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행동을 재구성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통해 범죄를 재구성하고 평가한다.

- 살인이 체계적인가?
- 자신의 환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주의 깊게 피해자를 선택하는 살인범이 저지른 범죄인가?
- 충동적이거나 정신병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비체계적 살인범의 소행인가?
- 경찰을 속이기 위해 현장은 조작되었는가?
- 피해자의 사인, 상처부위, 사체의 위치 등 세부사항에 의해 밝혀진 동기는 무엇인가? 등의 의문에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프로파일링의 규칙을 적용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잔인하게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아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으며
- ② 현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 범죄자는 총기를 사용하는 범죄자보다 훨씬 더 큰 충동성을 지녔을 것이며, 피해자와 훨씬 더 가까이에 살고 있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으며,
- ③ 아침 일찍 발생한 살인으로 보아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범죄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음.

이 단계에서 프로파일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답을 하면서 범죄 및 용의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라.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이 단계에서 프로파일러는 가장 가능성이 큰 용의자에 대해 최초의 묘사를 공식화하게 된다.⁴⁹⁾ 전형적으로 프로파일에 들어가는 내용은 용의자의 성, 연령, 결혼상태, 생활능력 및 직업, 심리적 특성, 신념과 가치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포함해서 경찰에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 등이다.

이 중에서 정서적 혹은 경험적 연령이 생활연령과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프로파일에서 용의자의 연령을 분명히 지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프로파일러는 또한 프로파일이 최초의 자료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단계의 정보에 대한 예측을 체크해 보는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드백(feedback) 단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프로파일을 요청한 경찰서에 범죄자의 식별과 체포를 위한 전략이 제공되기도 하며,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가 있을 경우 가장 효율적인 신문을 위한 전략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마. 수사(Investigation)

이 단계에서 문서화된 보고서는 프로파일에 맞춰 용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관에게 전해지게 된다. 경찰은 종종 혐의 깊은 용의자를 이미 선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용의자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두 번째로 피드백

49) J. L. Jackson, D. A. Bekerian, "Does offender profiling have a role to play?" in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New York, 2001) p.5

(feedback)을 거쳐야하며, 필요에 따라서 혹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면 프로파일을 수정하게 된다.

바. 검거(Apprehension)

이 단계의 목적은 프로파일과 용의자의 특성을 비교·평가해 보는 것이다. 이 단계는 아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했거나, 용의자가 다른 관할 지역에서 검거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었거나 범죄를 중단 했을 경우에도 프로파일의 비교·평가가 불가능하다. 아예 검거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용의자의 검거를 위해서는 앞의 단계에 기초한 하나하나의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만일 용의자가 검거되었을 경우에는 그 용의자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 신문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용의자를 신문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용의자의 자백 혹은 어느 정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앞에서 범죄프로파일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FBI 모델을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프로파일링이 어떤 범죄수사에서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선정하는 범위를 좁혀주기 위한 꽤 가치 있는 도구로서 폭넓게 알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자프로파일링이 타당성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자문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FBI의 범죄프로파일링은 살인사건 수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 비판적이며, 전문 수사관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저항, 약물 사용, 보복과 가정 폭력에 있어서의 체계적 범죄자는 비체계적 범죄현장과 혼동하게끔 범행현장을 조작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부정확한 프로파일을 제공할 소지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FBI 방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되고 있다.⁵⁰⁾

3. Canter의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

David Canter의 방법은 본질에 있어서 통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FBI 방법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이론에 기초해서 범죄자 집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연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알려진 범죄자 집단을 연구한 후 많은 범죄자 집단을 정의하고, 그런 다음 이 집단과 알려지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범죄자 집단이 비교 집단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을 것 같다는 식의 특성을 나열하게 됨을 의미한다.

수사심리학의 기원은 1985년 스코틀랜드에서 Canter가 심리학적 개념들이 수사기법에 통합될 가능성을 논의한 시점으로 되돌아간다. Canter는 이 방법의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범죄수사에 환경심리학적 방법 일부를 응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심리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Canter의 수사심리학의 일차적인 목적은 심리학적 원리가 범죄수사의 프로파일 개발에 적합할 수 있는지 또는 프로파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⁵¹⁾

가. Canter의 5요인 모델

Canter는 다섯 가지 요인 모델(five-factor model)이라고 알려진 피해자와 범죄자간 상호작용의 5가지 국면에 기초를 두고 연구를 실시했으며, 다섯 가지 국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범죄수사 방향 설정을 도와준다.

(1) 대인관계적 일관성(Interpersonal coherence)

범죄자의 범행 당시 행동방식과 범죄 상황이 아닐 때의 행동방식의 상호

50) S. Egger. The killer among us : an examination of serial murder and its investigation (NJ : Prentice Hall, 1998) p.96

51) http://www.crimelibrary.com/criminal_mind/profiling/profilings2/1.html?sect=20

관련성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자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게 피해자를 다룰 것이라고 추정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범죄자의 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가정했으며, 이것을 지지하는 일화적 증거로써 대표적인 예가 Ted Bundy인데, Bundy는 피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이었음을 굳게 믿었다고 한다.⁵²⁾

(2) 사건과 장소의 유의미성(Significance of time and place)

범죄분석가 혹은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의 이동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결국 용의자의 거주지, 생활 영역 등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의 시간과 장소는 범죄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자가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이며, 범죄자들이 자신의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피해자를 공격한 시간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쉬는 날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범행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을 근거로 범죄자의 개인적 삶에 대한 단서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⁵³⁾

(3) 범죄자 특성(Criminal characteristics)

이것은 범죄자 집단의 분류에 대한 하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이것은 현재의 범죄에 있어서 용의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같은 특성들을 수사관에게 제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FBI가 실시하는 프로파일링에서 체계적인 범죄자인지 혹은 비체계적인 범죄자인지로 범죄자를 분류하는 것은 범죄자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Canter 자신은 이 시스템이 두 분류간에 너무 많이 중복되

52) D. Canter, Offender Profiles, The psychologist, January(1989) pp.12-16.

53) http://www.crimelibrary.com/criminal_mind/profiling/profilings2/1.html?sect=20

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다.⁵⁴⁾

(4) 범죄 경력(Criminal career)

이것은 단순히 범죄자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만약 저질렀다면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을 지에 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법과학/법의학적 인식(Forensic awareness)

경찰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증거를 수집하는지, 또 그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해 범죄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가?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장갑을 꼈는가? 콘돔을 사용했는가? 또는 범죄자의 신체 분비물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는가? 등을 포함해서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범죄경력 혹은 전과에 대한 평가는 살인 이전에 강도 범죄를 저질렀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어떤 범죄자의 기술이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만일 성폭력 후에 범죄자가 피해자를 씻겼다고 하면, 이 범죄자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초범의 성폭력에서는 이런 방식이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전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정보를 받은 후 이미 선정된 용의자 또는 알려진 범죄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경찰에 제시될 것이며, 이 두 영역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전과 없는 용의자를 배제시키는 것으로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나. Canter의 반경이론(Circle theory)

54) P. P. Wilson & K. Soothill. Psychological profiling : Red, green or amber? The police journal(1996) pp.12-30.

55) 임준태. Op.cit. p.207

한편 Canter는 반경이론이라고 알려진 범죄자 행동 모델을 개발하였다. 반경이론이란 환경심리학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응용하는 것이다. 이 반경이론으로부터 두 가지 범죄자 행동모델 즉, 약탈자(marauder)와 통근자(commuter) 가설이 생성되었다.

여기서 약탈자 모델은 범죄자가 범죄를 자신의 집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더 멀리 나아가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통근자 모델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 자신의 집에서부터 원거리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범죄수사에 이 모델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초보자는 잘 모를 것이다.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기본 연구 방법은 회고적(retrospective) 즉,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집 위치와 범죄가 발생한 곳에 관한 사례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모델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범죄 프로파일러가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에 대해 약탈자인지, 통근자인지를 아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죄 행동범위와 거주지 범위로 정의된 거리 또한 문제가 되는데, 범죄의 정도 또는 위치와 범죄자 집으로부터의 거리 간에 분명한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⁵⁶⁾

4. Turvey의 행동증거분석(Behavior Evidence Analysis: BEA)

법과학자이면서 개인적으로 범죄 프로파일링을 실시한 Turvey는 행동증거분석(Behavior Evidence Analysis: BEA) 방식을 사용해 처음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성범죄를 연구하다가 나중에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을 연구하면서 이를 체계화하였다.

프로파일링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범죄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56) D. Canter & P. Larkin. The environmental range of serial rapis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1993), pp.63-69.

객관적인 기록은 범죄자 행동의 재구성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범죄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작업방식이다. 따라서 BEA는 많은 방법이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해 직관적인 접근에 더 의존해서 범죄자 행동을 검증할 때 검증되지 못하고 공간으로 남겨진 갭을 채우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모호성에 대한 법과학/법의학적인 분석, 심도 깊은 피해자 평가 및 피해자론, 범행현장 특징, 범죄자 특성 등 4가지 주요단계로 나뉜다.⁵⁷⁾

가. 모호성에 대한 법과학/법의학적인 분석(Equivocal Forensic Analysis)

이것은 증거의 해석이 한 가지 의미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 단계의 목적은 증거의 가장 그럴듯한 의미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 단계는 물리적인 증거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까지는 완전한 범죄 프로파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모호성에 대한 법과학/법의학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다양한 요소들을 배열하는데, 이 요소는 몇 가지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것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 범행현장 사진, 현장 비디오 및 스케치
- 수사관 보고서
- 증거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
- 부검 보고서, 부검 비디오 및 사진
- 목격자 및 이웃 사람들의 인터뷰
- 기타 사건 관련 서류
- 사건 전(살해 전)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지도
- 피해자의 환경

나. 심도 깊은 피해자 평가 및 피해자론(Depth Assessment of the Victim, Victimology)

57) B. E. Turvey. An introduction to criminal profiling. course notes. Available from <http://www.corpus-delicti.com>

비록 역사적으로 피해자의 평가가 프로파일링에서 가장 무시된 분야중 하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용의자와 유사한 형태로 프로파일링 되어야 한다.⁵⁸⁾ 피해자가 살아있는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용의자와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왜 휘말려들었는지 혹은 왜 살해당했는지에 대한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완전한 피해자 평가는 가능한 한 피해자의 정확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특별한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선택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범죄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준다. 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피해자 특성은 피해자의 체격이다. 수사의 재구성 단계 동안에 용의자가 피해자가 발견되기 전 피해자를 일정한 거리만큼 옮겼다는 생각이 든다면, 용의자는 근육질이거나 적어도 혼자서 범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비슷하게, 용의자가 저항 없이 피해자를 유괴할 수 있었다면, 혹은 피해자가 의심 없이 범죄자를 따라 갔다면, 면식범임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적응되어 있고,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를 속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추론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런 추론을 지지하는 다른 증거들이 이 암시를 지지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것이다.

다. 범행 현장 특징(Crime Scene Characteristics)

범죄현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피해자와 범행 장소를 고려한 범죄자의 행동결정과 그것이 범죄자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 단계는 이 범죄 현장이 다른 관련 범죄 현장과 상대적으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범행 현장 위치와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

58) R. M. Holmes & S. T. Holmes. Profiling Violent Crimes. (Sage Publication, 1996) p.76

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⁵⁹⁾

예를 들어, 법과학/법의학적 정보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범행현장을 보고, 범죄현장특징을 결정할 때는 이 현장이 여러 가지 현장중 하나일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안전하다. 추론에 의해서 또는 다행스럽게도 이전 범죄 현장을 찾을 수가 있다면 현재의 범죄현장과 관련된 법과학/법의학적 정보를 더 많이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유용한 것이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대부분 이루어졌을 최초 범죄현장은 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낼 것이고, 결국 범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생하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라. 범죄자 특성(Offender Characteristics)

BEA의 마지막 단계는 범죄자 특성을 평가하는 단계인데, 앞의 세 단계에서 이끌어낸 정보들에 기초한 범죄자의 행동적·성격적 특성을 포함한다. 이것이 범죄자 특성에 대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밝혀진 자료가 있을 때는 즉시 고치거나 재고찰해야만 하며, 수정된 자료를 이용해 잘못된 점을 밝히거나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이전 단계에서 해석된 범죄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⁶⁰⁾

- 체격
- 성
- 직업 및 습관
- 양심의 가책 또는 죄의식
- 범죄자의 이동수단
- 범죄자의 성장배경
- 범죄의 기술적 수준

59) 최성재, 살인사건의 연관성 프로파일링연구(행동증거분석기법의 활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p.18

60) V. J. Gerberth.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 (Boca Raton : CRC Press, 1996) p.84

- 공격성
- 범죄자의 거주지
- 의학적 진료기록
- 결혼 상태

전체적으로 이런 정보들은 범죄자의 사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자료를 통해 수사관은 범죄자의 집단, 용의자 또는 용의자 집단에서 범죄자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보는 더 많은 용의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수사관이 현재 찾고 있는 많은 용의자들을 추려내 범위를 좁혀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BEA가 범죄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 통계적 추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행동을 평가할 때 최고의 교차문화적 적응력을 갖는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범죄현장에 남아 있는 모든 물리적 증거, 범죄자 행동 그리고 피해자 특성을 고려하는 강력한 수사방법이며,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프로파일을 총괄적으로 작성하게 해주는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행동증거분석 방법에 대한 한 가지 비판을 제기한다면, 초심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작성한 프로파일의 질적인 면이 분석자가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⁶¹⁾

5. 소결

61) W. Petherick, Criminal Profiling : How it got started and how it is used. Available from <http://www.crimelibrary.com/criminology/criminalprofiling2>.

이상으로 FBI의 범행현장분석, Canter의 수사심리학 그리고 Turvey의 행동증거분석 등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범죄 프로파일링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며, 프로파일링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출신 배경도 유사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학적인 프로파일링은 고비용이 소요되는 고급수사기법의 일종이다. 그런데 범죄와 범죄자의 성향과 생태적 속성이 국가마다,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파일링 체계를 그대로 한국에 도입해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위 ‘데이트 강간’이 미국에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에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화 차이는 프로파일링의 체계에서 커다란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⁶²⁾

따라서 반드시 통계적 방법을 프로파일링에 응용해야한다는 식의 경직된 사고보다는 일부 방법을 다른 장면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물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하고자 시도하는 누구든지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이 맡은 현재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적용해야할 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프로파일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⁶³⁾

제4절 프로파일링의 목적

62) 박광배, 배현정,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Vol21, No.1, pp.20.

63) 함근수, 표주연, 강덕지, 문완식 “범죄프로파일링 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96) pp.98-99.

프로파일링은 범죄수사, 범죄관리, 강력범죄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⁶⁴⁾

Turvey는 프로파일링을 실시하는 목적을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수사단계

첫번째는 범죄자에 의해 최초로 범죄가 저질러지고, 범집행부서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단계인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범죄수사에서 가능성 있는 용의자의 집단을 줄이기 위한 것과 이 용의자들에 대해 수사상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
- 특이한 범죄현장이 암시하는 것과 행위유형을 식별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관련된 범죄들의 연관성에 있어서 도와주는 것
- 더 심각하고 더 폭력적인 범죄로 발전하는 범죄 행동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잠재성 평가를 돕기 위한 것(예: 괴롭힘, 스토킹, 관음증 등이 살인 및 강간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
- 수사관에게 수사적으로 관련된 단서 및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
- 전체 수사의 방향 설정을 도와주기 위한 것

프로파일이 범죄수사에 주는 매력은 기존의 수사범위를 크게 좁혀줄 수 있다는 부분이다. 특히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찾아야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특정한 대상만을 상대로 한 수사방향의 설정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프로파일을 통한 수사방향의 명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다른 사건을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너

64) P. E. Cook & D. L. Hinman, "Criminal Profiling: Science and Art", in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Vol. 15 No. 3, August 1999. p.234.

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사관 입장에서도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으로 범인을 쫓을 수 있다.⁶⁵⁾

2. 재판 단계

이 단계는 ‘범죄가 알려졌고, 범죄자도 알려진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의 일차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특별한 사례에 대한 법과학/법의학적 증거의 본질과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 인터뷰 또는 심문 전략 개발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 범죄자의 환상과 동기에 대해서 통찰하고, 이에 맞추어 새롭게 발생한 범죄에 관한 통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그리고 범죄 후의 마음 상태에 대한 통찰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예: 범죄의 계획수준, 양심의 가책에 대한 증거, 현장 조작 행위 등)
- 범죄 수법(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행한 일들)에 의하여 그리고 특징적 행동들(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상관없이 신체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행한 일)에 의해 범죄현장 관련성을 제공하는데 도와주기 위한 것⁶⁶⁾

제5절 프로파일링의 유효성

65) 최영안·엄건령, Op.cit. pp23-24.

66) B. E. Turvey,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ural evidence analysis(London: Academic press, 1999) p.132

프로파일링의 실체와 유효성에 대한 계량적 연구가 처음 시도된 것은 1995년 Copson 등에 의해서였다. CTN(Coals to Newcastle) 프로젝트라는 명명하에 진행된 연구에서 그는 프로파일러들의 결과를 활용하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⁶⁷⁾

그 결과 예측이 정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비율이 2.2:1 이었으며, 이는 프로파일러 개개인에 따라 1.5:1에서 6.8:1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CTN 프로젝트는 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조사문항 중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묻는 질문들에 대한 영국경찰관들의 응답분포가 다음의 (표8)에 제시되었다.⁶⁸⁾

(표8)을 보면, 영국의 경찰관들은 프로파일링이 사건해결 자체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안되지만, 수사과정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 프로파일링에 의한 정보의 유용성

질 문 항 목	예(%)	아니오(%)
사건해결에 도움 여부	14.1	78.3
수사방향의 결정에 도움 여부	16.3	82.1
유익한 정보 추가제공 여부	53.8	38.6
실제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	82.6	17.4

“수사를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찰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후속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가 (표9)에 나타나 있다.

67) G. H. Gudjonsson & G. Copson, Op.cit. pp.66-67.

68) (표 8)과 (표 9)는 184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이다.

(표9)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유용성의 측면	수	%
피의자 식별에 도움	5	2.7
사건/피의자에 대한 이해 증진	112	60.9
전문가 의견으로 수사과의 판단을 공고히 함	95	51.6
신문 설계에 도움	10	5.4
기타	17	2.3
유용하지 않음	32	17.4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응답자의 82.6%가 프로파일러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프로파일러에게 정보요청을 하겠는가에 대해선 반드시 하겠다는 응답이 68.5%, 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23.9%로서 전체 92.4%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⁶⁹⁾

그리고 Teten에 따르면, FBI 프로파일링은 77% 정도 되는 사건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고, 45%에 달하는 사건을 해결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였다고 하며, 17%의 사건에서는 不祥의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⁷⁰⁾

제6절 프로파일링의 한계

1. 활용상의 문제

프로파일링 기법·증거의 활용상 문제점으로는 이론적 배경 및 실제 활용 사례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에 관한 검증이 부족 또는 어렵다는 점에 집약된다. 기본적인 이론 배경이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과학적 검증방식의 적

69) Ibid. pp.73-75.

70) H. Teten, Offender profiling in The encyclopedia of police science(New York: Garland, 1995) pp.475-477.

용이 곤란하다는 점은 결국 프로파일링의 신뢰성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프로파일링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체로 모든 프로파일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데, 프로파일링은 ‘특정 범인을 인지 색출하기 위한 기법 내지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프로파일링은 마치 무속인의 직관적인 능력에 의하여 동일성 식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현장 및 제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해석하여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수사과정에 확보되는 무수히 많은 수사자료를 선별·정리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수사선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고, 용의대상자의 선별, 신문방식, 공판수행 전략 등에 대한 가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과학적 추론기법에 불과하다.

프로파일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은 바로 프로파일링 자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바탕하여 이를 활용하게 되는 수사책임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프로파일링 자체의 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⁷¹⁾

2. 反 프로파일링論

범죄자 체포와 사건해결 자체를 위해서 프로파일링의 활용도와 정확성이 이와 같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프로파일링이 아직 과학화 되지 못하였고, 프로파일러들의 전문성이 아직 낙후되어 그들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직관에 의하여 비체계화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이 의심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프로파일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희귀한 범죄들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에 기인한다.

71) 권창국,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2002) pp.131-132

프로파일링은 범죄자가 무엇인가 정신병리적인 흔적을 남긴 경우와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유용성을 가진다. 반면에 단순강간, 가택침입, 절도, 유괴, 사기 등의 흔한 범죄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미약한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미약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프로파일링은 범죄자 유형과악에서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또 한 가지의 가능한 이유는 프로파일링의 기본 전제가 범죄 혹은 범죄자의 일반적인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프로파일링은 동일한 범죄자는 유사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고, 유사한 흔적을 남긴다는 기본가정에 기초한다. 이 기본 가정이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⁷²⁾

프로파일링의 심리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사건의 처리에 심리적 프로파일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학자들은 이것만을 가지고 모든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⁷³⁾

최근 들어 과학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과학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프로파일이 제시되고 있다.⁷⁴⁾ 하지만 프로파일에 대한 맹신은 자칫 프로파일 만능주의를 불러와 다른 수사기법을 무시하거나 또는 잘못된 수사를 벌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프로파일에 대한 맹신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가장 대표적인 反 프로파일 학자로서 범죄심리학으로 저명한 Campbell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는 프로파일링은 단순한 기술의 하나일 뿐이지 범

72) 박광배, 배현정,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Vol21, No.1, pp.13-14

73) P. Jenkins, Using Murd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rial Homicide(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4) p.65

74) C. Linedecker and W. Burt, Nurses Who Kill(New York : Windsor, 1990) p.39

죄수사 전체를 대별할 만한 특별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는 자동차 모터에 프로파일링을 비유하면서 특정한 차량의 엔진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차량에 동일한 엔진으로 탑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차량에 적절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를 가지고 모든 자동차를 움직이려 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행위라는 점을 비판하였다.⁷⁵⁾ Campbell 교수가 지적한 프로파일링에 관한 세 가지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파일링에 정확하게 맞는 유형의 범죄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프로파일링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자 해도 사전에 조사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사관이나 수사기관이 그리 많지 않다.⁷⁶⁾ 그는 수사기관이 프로파일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프로파일링을 활용하는 경찰기관이 FBI, LA경찰국, 뉴욕경찰국 정도이다. 그만큼 프로파일링의 구성이나 이를 활용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며,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최근 들어 형사사법 분야에도 비용의 투입과 결과의 산출이라는 대비상에서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고 산출은 거의 없는 비효율적 작업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을 가지고 많은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면 초기부터 난항을 겪게 된다.⁷⁷⁾

둘째로, Campbell 교수는 범죄프로파일링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과 함께 이를 체계화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범죄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를 수

75) C. Campbell, "Portrait of a Mass Killer", Psychology Today 9, February 1976, pp.110~119.

76) G. Nettler, op.cit p.89

77) M. Neitzel, Crime and its Modification: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Elmsford, NY : Pergamon Pressing Co., 1997) p.94

행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의 공통화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용이 산만해지는 결과에 접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장에서 뛰는 형사들인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으며, 그냥 주위들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FBI 에서도 범죄프로파일링을 다루는 인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서 일반적인 수사관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수행한다. 범죄프로파일링의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활용분야와 효과성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진 이들은 극히 소수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해야 할 부분은 제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범죄수사에서 만능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생각은 사전에 버려야만 할 것이다.

셋째, 프로파일링은 심리학이나 행동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 비과학적이고 추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실질적으로 범죄프로파일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더 과학적인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뉴욕시 경찰국에서 강력팀장을 10여년간 담당했던 Vernon Gerberth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맹신자였다. 그는 여러 연쇄살인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사건의 해결을 범죄프로파일링을 통해 달성하였다고 언론에 공표하였다.⁷⁸⁾하지만 그가 은퇴한 이후인 1994년도에는 언론에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하여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의 선언 이전까지 모든 연쇄살인 사건은 범죄 프로파일링을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는 Vernon과 같은 현직 경찰관들이 프로파일링의 강점만을 강조한 나머지 발생한 잘못된 왜곡현상의 결과였다. 실제로 우연한 기회에 연쇄살인범을 검거해도 이를 우연으로 보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이라는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Vernon은 밝혔다.

그는 “모든 수사관들이 연쇄살인범을 잡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연

78) V. Gerberth,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 2nd ed.(Boca Raton, FL: CRC Press, 1993) p.103

쇄살인범을 체포했을 경우에 상당수가 우연히 검거되기 때문에 별다르게 둘러댈 사유가 없다. 그래서 과학수사의 개가니, 첨단수사의 결정체니 하면서 프로파일링으로 그럴싸하게 수사과정을 포장하는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Vernon은 다양한 수사기법 가운데 현재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범죄프로파일링이라면서 이러한 인기에 영합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수사기관과 언론의 관계가 아쉽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⁷⁹⁾

실제로 범죄프로파일링은 각종 영화나 범죄수사 관련 프로그램의 단골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류의 주제에 맞는 수사과정은 극히 제한적이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영화와 같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경우는 극히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프로파일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학자들의 논거이다.

프로파일러의 역할은 철저하게 범죄수사관이나 형사를 돕는 보조자로서의 성격이다. 프로파일러가 수사를 주체적으로 이끌 수는 없으며, 수사라는 엔진에 부어지는 일종의 윤활유라고 볼 수 있다. 프로파일링 만능주의는 배제되어야만 한다.⁸⁰⁾

CSI⁸¹⁾의 세계적인 성공이후로 가장 각광을 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인 범죄과학자들은 범죄가 일어난 현장의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가해자의 성별과 신장, 혈액형, 족적을 통한 발의 크기 등을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성별과 신장, 혈액형과 같은 물리적인 증거자료가 절대로 범인의 인격이나 성격, 정신상태 등을 알려줄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⁸²⁾

영화 ‘양들의 침묵’이나 ‘본 콜렉터’등의 연쇄살인과 관련한 범죄영화에서 주인공이 만들어낸 프로파일링이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79) V. Gerberth, "Psychological Profiling", Law and Order 29, 1981, pp46~49.

80) G. Netler, op.cit. p.69

81) Crime Scene Investigation 의 약자로 범죄현장 감식 뿐만 아니라 수사를 병행하여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팀으로 미전역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기도 함

82) D. Kennedy and R. Nolin, op.cit p.57

이러한 프로파일링의 성공사례는 현실에서 찾기가 극히 어려우며, 성공한다 하더라도 프로파일링만으로 범죄자를 잡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⁸³⁾

범죄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거의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된 바대로 행동하는 범죄자의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범죄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모두 해내는데 반해서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범죄자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계획했던 바대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⁸⁴⁾

브루스 윌리스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주었던 영화 다이하드에 나오는 테러범들 또한 아주 철저하면서 자로 잰 듯한 행동양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에서 다이하드에 나오는 유형의 테러범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철저하게 극화된 내용에 불과하다. 범죄프로파일링이나 이것의 적용을 받는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철저함의 외형적 모습은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진 것이다. 설사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 하더라도 과정적인 측면에서만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 나오는 모습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⁸⁵⁾

3. 증거능력의 문제

프로파일링 증거에 관한 미국 판례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긍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프로파일링 증거의 허용성을 부정하는 판례들의 주된 이유는 원칙적으로

83) R. M. Holmes, "A Model of Personal Violence", Kentucky Research Bulletin 2, 1988, pp. 1~5.

84) D. Kennedy and R. Nolin, op. cit. p.55

85) 최영안·염건령, Op.cit. pp.83~84.

증거활용이 금지된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 내지 유사사실증거(similar fact evidence)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과학적 증거로서도 프로파일링 증거의 신뢰성을 긍정하는 과학적 지지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State of Ohio v. Richard Haynes(1988)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취업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권한 술과 약 등을 함께 마신 후, 취하여 그대로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오럴 섹스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뿌리친 후,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하여 자신을 진정시키고, 다시 침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벗어놓은 옷가지 등을 던지면서 입으라고 한 뒤, 자신의 취업지원서 등을 찾기 위해 방안을 뒤지고 있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과도를 꺼내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이후 두 명은 서로 칼을 들고 다투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휘두른 과도에 손목 등을 베었고, 피고인은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찌르자,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으로 황급히 가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칼을 가져왔으나, 이미 피해자는 사망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연락 후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으나 출동하지 않자, 그대로 피해자의 차를 훔쳐 도주하였는데, 이후 버지니아 주에서 다른 사안으로 검거되어, 경찰의 여죄수사 끝에 위 범죄사실이 확인, 살인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1심은 이를 부정하고, 단지 살인행위 시 피고인에게 의도성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검찰측의 프로파일링 증거에 따라 의도성을 긍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자, 피고인은 첫 번째, 정당방위를 부정한 점과 두 번째, 원심이 활용한 프로파일링 증거는 과학적 신뢰성 내지 일반적 승인을 얻지 못하여 설명적 가치보다는 부당한 편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가 보다 큰 관련성 없는 증거를 허용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다.

항소심은 원심의 위법을 인정, 파기 환송하였는데, ① 과학적 증거의 신

뢰성은 당해 전문가의 충분한 관련 전문지식의 보유라는 요소 외에도 당해 증거에 원용된 과학적 원리의 신뢰성도 긍정되어야 하는데 프로파일링의 신뢰성이 긍정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고, 이는 감정인으로 진술한 수사기법으로서의 프로파일링의 신뢰성에 대하여 긍정하였을 뿐, 법정증거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사실 등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는 점, ② 프로파일링 증거는 본질적으로 성격증거로서, 성격증거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성격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반증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검찰측이 활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성격증거의 주장, 제출이 없음에도 이를 활용한 점, ③ 원칙적으로 증인은 자신이 체험한 사실만을 보고할 뿐 의견을 진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감정인의 경우, 사실판단주체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살해행위 시 의도성 유무판단과 관련한, 동성에 행위 후 바로 가해행위 없이, 시간이 지체된 후에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있었던 사실에 바탕한 감정인의 의견진술은 배심 등 사실판단주체의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감정인의 의견은 오히려 부당한 편견을 야기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⁸⁶⁾

나. 증거능력을 긍정한 사례

Delaware v. Pennell(1991) 사건에서 3건의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1심은 각 사건 간의 범행방법 등에 관한 각종 정황증거, 기타 물적 증거 및 동 증거의 분석에 바탕한 동일인의 범행임을 진술한 FBI 소속 프로파일러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긍정한 바 있는데, 특이한 점은 본 판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프로파일링 증거는 과학적 증거로서 Frye Test에 의한 일반적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증거허용성의 부정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프로파일링은 프로파일러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바탕한 것으로 과학적증거로서의 속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 Frye Test의 적용을 부정, 원심판단을 그대로 긍정하였다.

다. 미국 판례사안에 대한 분석

86) 권창국, Op.cit. pp.133-135.

대체로, 프로파일링 증거에 대한 미국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면, 크게 2가지 각도에서 증거능력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영미증거법에 있어서 관련성 없는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허용 금지된 성격 증거 및 유사사실증거라는 시각에서 프로파일링 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하는 입장, 두 번째로는 성격 및 유사사실증거로서 특성외에도 사회과학적 지식이 활용된 과학적 증거라는 시각에서 검토하는 입장이다.

(1) 성격 또는 유사사실증거로서 프로파일링 증거

전통적으로 영미증거법은 증거를 요증사실에 대한 입증형태를 기준으로 직접증거, 간접증거로 분류하는데, 후자는 소위 입증과정에서 추론과정을 요함으로 인하여, 요증사실에 대한 직접적 설명력을 제공하는 직접증거에 비하여 구조적 취약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자백에 우월적 가치를 인정한 근대 이전의 형사소송과 달리, 근대이후 형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에 바탕한 증거가치평가가 이루어져, 간접증거만에 의하여도 충분히 입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구조상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간접증거에는 관련성에 의한 증거허용성 제한을 가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격 및 유사사실증거이다.

따라서 성격 및 유사사실증거는 증거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률적인 것은 아닌데, 성격증거의 경우, ①성격증거가 요증사실의 본질적 사항의 입증자료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증인의 신뢰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증인의 가식적 성격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등, ②요증사실의 객관적 부분이 아닌 고의·과실, 행위동기, 목표, 계획, 인식여부 및 상습성 등의 입증을 위해 전과, 비행사실증거 등을 활용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범인과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가운데, 피고인의 다른 범죄경력에 의하여 피고인과 당해 범죄의 범인과의 동일성을 긍정하기 위한 경우, ③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선량한 성격을 입증하는 경우로 선량한 성격에 관한 평판,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경우, ④피해자의 폭력적 성격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악성격에 관한 평판, 의견증거를 피고인이 제시하

는 경우 등의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유사사실증거의 경우, 과거의 발생사실과 현재 입증대상 사실 간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예외적으로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⁸⁷⁾

(2) 과학적 증거로서 프로파일링 증거

프로파일링 자료에는 단순히 성격, 범행수법외에도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소들도 언급되어 있다. 또한 프로파일링은 심리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적 성과와 함께 법과학 등 자연과학적 분석기법 역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신뢰성 판단을 별론으로, 과학적 증거로서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과학적 증거로서의 신뢰성이다. 신뢰성이 없다면 그것은 소위 사이비 과학적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도 기본적으로 간접(정황) 증거로서의 관련성 유무 판단의 문제에 출발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적 원리, 기술의 적용과 관련한 신뢰성 판단의 특수성과 보편타당성 추구, 경험적 판단 등 그 방법론상 특수성에 기인한 높은 신뢰성 추정에 기인한 편견유발의 문제 등에서 일반적인 관련성 판단과는 다른 좀 더 강화된 요건하의 증거능력 판단을 요한다.

과학적 증거로서 증거허용성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① 적용된 과학적 원리의 유효성, ② 적용기술 또는 방법의 유효성, ③ 특정한 사례에의 동 기술의 적절한 적용여부에 대한 입증이 요구된다.⁸⁸⁾

87) Federal Regulation of Evidence 404-415. 참조

88) 권창국, Op.cit. p.141.

제5장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활용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연혁 및 연구동향

한국에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범죄관련 실무분야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시작되었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범죄분석실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해 연구지향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2000년 1월부터 프로파일링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살인, 연쇄강간, 방화, 강도, 절도 등 프로파일링 대상 범죄자 검거시 범인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성장환경·성격·범행자극 요인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축적 하고 있으며, 그 성과물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⁸⁹⁾

경찰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범죄분석관 1명을 지정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2004년부터는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강력 범죄 분석팀(ViCAT: Violent Crime Analysis Team)’을 설치하고 각 지방경찰청 별로 분석요원을 지정, 체계적인 범죄분석 및 범인상 추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5년에는 Criminal Profiling 업무를 위해 범죄분석관 16명을 특별채용하였다. 이들은 2000년 2월 직제를 신설하여 배치한 현장감식 경험과 수사경험을 가진 요원들과 함께 연쇄살인, 가학적인 성폭행 사건 등 프로파일링 대상범죄가 관내에서 발생할 경우 현장감식반과 동행·임장하여 사건을 분석하며, 검인 검거시에는 심층 면담하고 범행중 범죄자 행동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2000년부터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와 국내 최초로 범죄심리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가 공동 주관으로 범죄심리 및 범죄수사와 관련된 주제의 학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89) 임준태, 강력범죄에서의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criminal profil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2003). pp.376-377.

특히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는 범죄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범죄심리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범죄심리사들 중 상당수가 경찰의 프로파일 업무를 포함한 범죄분석 전문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⁹⁰⁾

제2절 운용실태와 절차

1. 운용실태

2006년 1월과 7월에는 심리학·사회학 등을 전공한 전문인력 30명을 경장 계급의 경찰관(범죄분석관)으로 특별채용, 범죄분석팀에 배치·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자격요건은 심리학·사회학 전공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이 되는 자이다.

최종시험에 합격한 이후 범죄분석관들은 신임순경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약 6개월간 신임순경이 받는 교육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으며, 프로파일링에 대한 교육은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이수 후 각 지방경찰청 별로 1 ~ 4명이 배치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본연의 업무외에 업무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저해하거나 일부 경찰관들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도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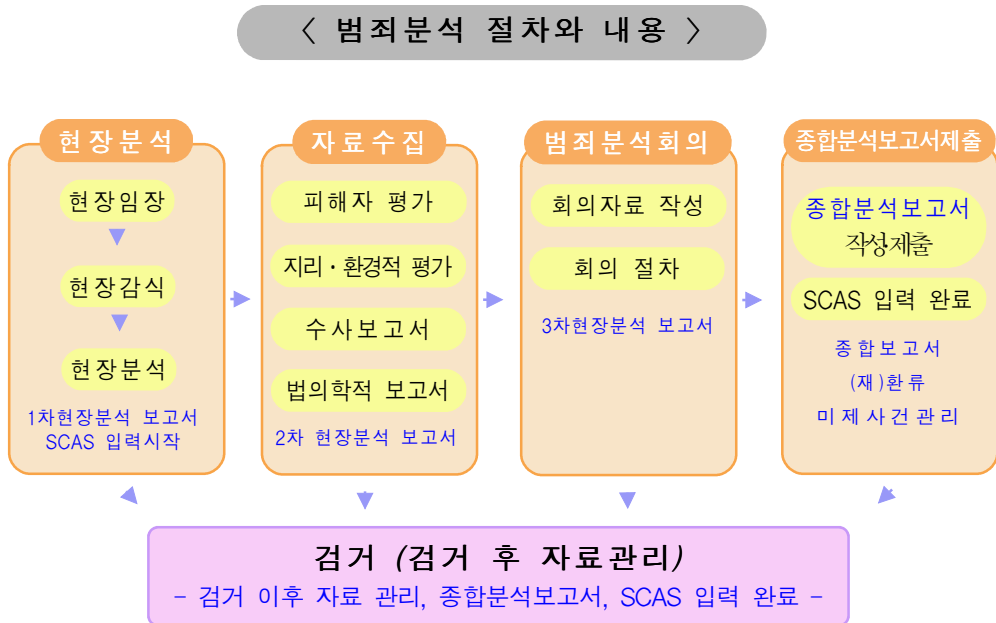
2. 운용절차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죄분석 절차와 내용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90) Ibid

91) 경찰청 내부공문

(표10) 범죄 분석 절차와 내용



가. 현장 분석

(1) 현장 임장

현장 분석의 첫 단계는 현장임장 준비에서 시작된다. 사건 발생과 함께 정보수집이 시작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며, 무엇을 봐야 하며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한다. 범죄분석을 위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2) 현장 감식

여기에서 현장감식은 현장감식팀이 행하는 현장감식을 범죄분석요원이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범죄분석요원은 현장감식팀과 서로 보완해가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범죄분석요원이 현장 재구성을 통하여 피의자가 출입했을 만한 장소, 집었을 만한

물건, 범인이 했을 만한 행동 등에 대해 현장감식팀에 말해주는 것 등이다.

(3) 현장 분석

현장을 본 후 첫 단계로 이루어지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전체가 결정되듯이 현장분석은 어떠한 편견 없이 순수하게 현장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현장분석은 1차 보고서를 통하여 제출된다.

현장분석단계에서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입력이 시작된다. 입력 가능한 현장 사항 및 피해자 특성을 입력한다.

나. 자료 수집

(1) 피해자 평가

피해자의 연령, 성 등 피해자의 배경과 이웃 사람과의 관계, 사건 직전의 이동경로, 생활패턴 상의 위험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지리·환경적 평가

교통수단, 대체경로의 유무 등 범죄자가 범행장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를 범죄분석관이 답습해봄으로써 범죄자 유형에 관한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다.

(3) 각종 보고서 등

일자, 시간, 위치 등에 관한 표준화된 보고서, 사용된 범행도구, 상세한 목격자 인터뷰 등의 수사보고서와 신체손상 부위를 찍은 사진, 약독물학적 보고서, 사인에 대한 보고서 등 법의학적 보고서를 수집 분석한다.

이렇게 수집된 보고서를 토대로 2차 현장분석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2차 보고서는 1차 보고서에 부가하여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다. 범죄분석회의

(1) 회의자료

범죄분석팀에는 진술분석 및 피해자 위험도 분석등의 자료를, 현장감식팀에서는 현장임장 사진 및 현장 증거 결과물 분석자료를, 검시팀에서는 사체상황 및 특이점 검시 자료 등을 준비한다.

(2) 회의 절차

- 사건에 대한 개요, 현장 채증시 발견된 증거물 사항 - 현장감식팀장의 설명(현장 사진 및 요도 첨부)
- 사건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이사항 및 분석자료에 대한 범죄분석팀장의 설명
- 사체 특이사항 및 전반적 부검사항에 대해 검시팀장 설명
-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 형사과장 및 수사팀장 설명
- 위 논의 사항에 대해 의문점에 대한 논의 시간
- 회의 관련 자료 공유

범죄분석회의를 바탕으로 이후 환류, 재환류 과정 등에 대하여 ‘3차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SCAS에 입력하여 범죄분석요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종합분석 보고서 제출

종합분석 보고서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두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첫 단계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분석단계로서 사건개요, 증거물 해석, 법의학적 검토, 범죄현장 특징 검토, 범행 과정 재구성, 수사사항 검토, 피해자 종합 검토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는 용의자의 특성 분석단계로서 범죠행위 검토, 범행 동기 추정, 용의자 유형 검토, 연계성 검토, 수사상 조언, 검거 후 전략 제시 등을 포함한다.

마. 검거이후 자료 정리

사건이 발생하고 피의자가 검거되면 검거 전에 작성한 피해자, 지리·환경적 자료에 추가하여 피의자와 관련한 추가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수집된 피의자와 관련한 사건 관련 정보를 통해 검거 전에 실시한 범죄분석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범죄분석기법의 재평가 및 새로운 분석기법의 도입·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검거 후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생성되고 축적된다.

검거 후 종합분석보고서, 면담결과 보고서는 SCAS에 입력하여 전국의 범죄분석요원이 공유하도록 한다.⁹²⁾

제3절 프로파일링에 의한 검거사례

1.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경찰이 밝힌 정남규의 자백 내용에 따르면 2004년 2월 26일 신림동 재

92) 경찰청, 범죄행동분석 매뉴얼(2006) pp.21-64.

래시장 노상에서 할머니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여고생(18세)을 흉기로 찌른 것이 연쇄범행의 시작이었다.

정남규는 같은 해 4월 22일 고척동 주택가와 5월 9일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근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2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경찰에서 털어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피해 여성들은 모두 흉기로 살해당했다.

정남규는 또 2005년 4월 18일 금천구 시흥동의 모 빌라 1층에 창문으로 침입해 주부(47세)와 아들(13세)을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털었고, 같은 해 10월 9일에는 봉천동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30대 여성 2명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모두 강도행각을 벌이다 ‘입막음’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다.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지 열흘 뒤 정남규는 봉천동에 사는 변모(26세)씨의 반지하방에 들어가 금품을 털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둔기로 때리고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뒤 옆방에 있던 오빠(29세)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정남규는 이어 2005년 3월 27일 새벽 서울 봉천동 김모씨의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 잠을 자던 김씨의 딸 3명을 둔기로 때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뒤 이불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중태였던 김씨 딸 1명도 다음 날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이후 서울경찰청 범죄분석팀은 일련의 사건들이 연쇄살인에 의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⁹³⁾

봉천동 세 자매 살인 사건에서 서울 경찰청 범죄분석팀은 사건분석후 피해자의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낮게 봤다. 특히 문고리의 장갑 흔적, 지갑의 뒤진 흔적 등을 볼 때 비면식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비산흔을 보았을 때 피해자의 반항이 있는 상태에서

93) 세계일보, 2006. 4. 24.

가격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보았다. 즉 범인 도주용이나 목격자 살해 목적 등의 이유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이상동기로 인해 가격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건분석을 통해 범죄분석팀은 서남부의 일련 사건은 강절도나 강간이 발전해서 살인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체계적인 사건은 아니더라고 판단했다. 즉 범인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20~30분간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사이코패시적인 성향이 있는 자로 판단하고 연령대와 범죄수법 등의 구체적인 범인상을 추정하고 당시 진행하고 있는 수사방향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며칠 후 드디어 정남규의 덜미가 잡히게 되었다. 이는 2006년 4월 22일 오전 4시50분께 김모(24세)씨가 사는 신길동지하방에 침입해 금품을 털려다 실패하면서부터였다.

정남규는 김씨가 깨기 전 방을 뒤졌으나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 1장 밖에 발견하지 못한 데 화가 나 김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렸던 것이 정씨 입장에서 화근이었다. 이상한 소리가 나자 옆방에서 자던 김씨 아버지와 친구가 달려와 격투를 벌인 끝에 정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수갑을 찬 채 순찰차로 끌려가던 정씨는 빈틈을 타 인근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으나 도주 2시간여만인 오전 7시45분께 포위망을 치고 수색을 벌이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경찰청 행동과학팀은 영등포 경찰서의 강도상해사건으로 검거된 보고서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침입하여 파이프렌치로 1회 머리 가격하고 달아나다가 피해자에게 검거됨’이라는 보고서의 한 줄을 보고 피의자 정남규의 면담을 신청했다. 피의자 정씨와 30여분간 면담을 거치며, 정씨가 사이코패시적인 성향이 있음을 느꼈고 범죄분석팀은 단순 강도상해가 아닌 서남부 연쇄살인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팀에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여 총 18건의 연쇄살인, 강도, 상해사건을 밝혀내게 되었다.⁹⁴⁾

2.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2006년 10월 30일 서울 상계동의 한 주점에서 주인 장모(52.여)씨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현금 5만원이 든 피해자의 지갑이 사라졌다. 맥주병과 컵의 지문은 지워졌고, 담배꽂초조차 물로 씻겨졌다. 안주로 먹다 남은 포도 껍질과 이쑤시개 몇 개만 남아 있었다.

한편 2006년 11월 16일 충남 천안 성정동의 원룸에서 거주자인 정모(42.여)씨가 전깃줄로 목이 감겨 숨진 채 피살됐다. 외부에서 문을 따고 들어간 흔적이나 지문은 없었다. 정씨의 휴대전화만 사라졌을 뿐이다.

같은 해 11월초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은 범인의 윤곽을 그리기 위한 '범죄의 재구성'에 착수했다. 프로파일러들은 “현장에서 물증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치정·원한 관계가 없어 현장수사 기법으로는 용의자를 압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범인이 40, 50대 중산층 이하의 여성을 노렸고, 꼼꼼하게 증거를 인멸했으며, 범행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범죄 유형을 추론했다. 이어 “음주와 금전 문제가 있으며, 저학력 출신으로 강도·살인 전과를 가졌다”는 프로파일링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행동과학팀은 250건이 넘는 전국의 강력범 검거 보고서를 쟁겼다.

그러던 11월 25일 충남 천안경찰서가 김모(34.구속)씨와 민모(34.구속)씨를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검거했다. 이들은 희생자 정씨의 휴대전화로 성인 채팅을 하다 붙잡혔고 범행을 자백했다.

행동과학팀은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검거 보고서를 주목했다. 보고서는 단 몇 줄에 불과했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파일러들은 ① 40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②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했으며 ③ 목을 졸라 살해한 뒤 ④ 지문과 유전자(DNA) 흔적을 지우는 등 상계동 사건과 유사한 정황을 놓치지 않았다.

94) 월간수사연구(2006.6) vol272. pp40-41.

행동과학팀은 상계동 사건 현장의 포도 껍질, 이쑤시개에 남은 DNA 분석을 하고, 천안 원룸 사건 범인의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DNA를 대조했다. 결과는 똑같았다. 두 사건 현장에 남긴 신발 자국도 일치했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범행을 추궁한 끝에 '06년 12월 4일 범인들로부터 상계동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범인들의 학력·전과 등은 프로파일링과 일치했다.⁹⁵⁾

제4절 프로파일링 운용상 문제점

1. 범죄분석 요원들이 인식하는 문제점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경찰에서 프로파일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범죄분석요원 17명에 대하여 설문지(부록1 참조)를 발송하여 14명이 응답을 보내왔다(응답률 82%).

가. 업무만족도

(1) 상사 업무지원

상사로부터의 업무지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11)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11) 상사의 업무지원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4	0	1	1	7	3	1	1

95) 중앙일보. 2006. 12. 5.

(표12)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6	7

응답내용을 (표12)의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상사업무지원 평균 만족도는 4.35이다.

(2) 상급기관 업무지원

상급기관의 업무지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13)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13) 상급 기관의 업무지원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4	1	1	5	4	2	0	1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상급기관 업무지원 만족도는 3.64이다.

(3) 형사요원으로부터의 협력

형사요원들로부터의 이해나 업무협력에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14)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14) 형사 요원의 업무협력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4	0	2	6	4	1	1	0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형사요원로부터의 만족도는 3.5이다.

(4) 분 석

상사로부터의 업무지원에 대해서는 4.35로서 보통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 상급기관의 업무지원에 대해서는 3.64, 형사요원들로부터의 이해나 업무협력에 대해서는 3.5로서 보통수준이하를 보임으로써 특히 형사요원들로부터의 업무협력이 원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 근무환경

(1) 임용 전 교육

임용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시한 교육은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 15)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15) 임용 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4	1	1	7	3	1	1	0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임용 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3.36이다.

(2) 임용 후 교육

임용 후 상급기관에서 주관, 실시한 교육은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16)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16) 임용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4	0	2	2	1	8	1	0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임용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4.29이다.

(3) 현 근무부서 근무환경

현 근무부서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기자재 등 근무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17)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17)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4	1	2	1	5	3	2	0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현 근무부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5이다.

(4) 보수

현재 수령하고 있는 보수(시간외 수당 포함)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18)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18) 보수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4	1	1	3	5	1	2	1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보수만족도는 4이다.

(5) 분 석

범죄분석요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사무실, 기자재 등의 하드웨어적인 면에 대한 만족도와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5와 4를 기록하여 보통수준을 보이고 있고, 임용 후에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대해서는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4.29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임용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시한 교육에 대해서는 3.36을 나타내어 예비범죄분석요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 업무프로세스

(1) 업무 매뉴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 매뉴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 19)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19) 업무 매뉴얼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4	0	1	2	6	2	3	0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업무 매뉴얼 만족도는 4.28이다.

(2) 범죄관련 데이터

현재 제공되고 있는 범죄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20)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20) 제공된 범죄 데이터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4	0	2	6	4	2	0	0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범죄관련 데이터 만족도는 3.42이다.

(3) 업무성과 평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무성과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21)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21) 업무성과 평가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4	0	7	2	4	1	0	0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업무성과 평가 만족도는 2.92이다.

(4) 분 석

업무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업무매뉴얼에 대한 만족도는 4.28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공되고 있는 범죄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3.42로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업무성과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2.92에 불과하여 범죄분석요원들의 업무성과 평가방법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분석업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한 자유응답 항목에 대하여 「과학수사계 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범죄분석요원이 현장감식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 실정으로서 현재의 프로파일링은 지방청 과학수사계에 인원을 늘려주는 것 이외에 의미가 없다」라는 극단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도 지방경찰청의 과학수사 부서내에서 조차 프로파일링의 정체성이 덜 확립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 외에도 프로파일링의 정착을 위한 DATA BASE의 구축 미흡, 다른 과학수사요원 및 강력 수사팀과의 협력 미흡,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의 미흡, 상급자의 인식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2. 형사요원들이 인식하는 문제점

범죄분석요원들의 프로파일링 결과를 토대로 사건 해결에 활용하는 형사요원들은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제주 등에 근무하고 있는 형사요원 60명에 대하여 설문지(부록 2 참조)를 발송하여 46명이 응답을 보내왔다(응답률 76.6%).

가. 프로파일링 인지도

프로파일링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명으로 32.6%에 불과하여, 형사요원 2/3 가량이 프로파일링 절차

차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⁹⁶⁾

나. 프로파일링 요청의 필요성

범죄수사과정에서 범죄분석요원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했거나 요청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18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요원들은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프로파일링의 가치

프로파일링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82.6%인 36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라. 프로파일링의 효용

‘프로파일링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 라고 답변한 36명에 대하여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하여, ① 수사방향의 결정(20명 55%), ②사건에 대한 이해의 증진(8명 22%), ③피의자 식별(6명 16%), ④수사관의 판단을 공고히 함(2명 5%) 순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마. 프로파일링 만족도

프로파일링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31명에 대하여 언론보도, 수사간부들의 접근태도, 범죄분석요원들의 업무협력태도 등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96) 07.2-3 사이에 경찰청에서 일선 형사요원 및 지구대 요원들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순회교육을 한 차례 실시하였다.

(1) 언론보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22)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22) 언론보도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31	2	8	3	14	3	1	0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언론보도에 대한 만족도는 3.32이다.

(2) 수사간부들의 접근태도

수사간부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접근태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23)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23) 수사 간부들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31	2	6	3	15	2	3	0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수사간부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접근태도 만족도는 3.58이다.

(3) 범죄분석요원들의 업무협력태도

범죄분석요원들의 업무협력 태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에 대하여는 (표24)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표24) 범죄분석 요원의 업무 협력 태도에 대한 만족도

척도 응답자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31	1	5	3	13	4	5	0

응답내용을 본 설문 결과 척도 기준표에 대입시켜 평균값을 구한 응답자들의 범죄분석요원들의 업무협력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3.61이다.

(바) 분 석

형사요원 2/3 가량이 프로파일링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경찰 내부의 홍보나 교육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경력 17년차인 50대의 여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나이든 수사관의 경우 프로파일링을 모르는 직원이 많다. 본청이나 서울청에서 운용도 좋지만 일선 경찰서에서 인식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형사요원 중 82.6%가 프로파일링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더 더욱 프로파일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아울러 형사요원들은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언론보도, 수사간부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접근태도, 범죄분석요원들의 업무협력태도 등에 대하여 4 이하의 평균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프로파일링을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려는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치 프로파일링이 사건 수사의 모든 것인 양 과장 보도 되거나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되며, 수사에 기여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인 만큼 사건 수사의 보조 수단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제1절 발전방안

1. 형사요원과 범죄분석요원간의 이해증진

“범죄분석팀이 부각되고 있지만, 범인을 발로 뛰어서 잡아야지 어떻게 앉아서 범인을 잡나”(어느 형사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에 몰입한 형사들은 단서가 나오면 그것이 확실하다는 신념과 믿음을 갖고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신념이 없으면 여러 우여곡절이 생기기 마련인 수사과정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가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사건에 너무 몰입했기 때문에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노력한다.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어느 범죄분석요원과의 인터뷰에서)

“강력 사건 발생 시 수사간부 및 강력형사들은 범죄분석요원의 진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분석 자료를 쉽게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로 검거이후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이 범인이 검거되기 전인 발생시부터 담당 수사팀과 혼연일체가 되어 수사에 투입되는 것이 요망 된다”(어느 형사와의 인터뷰에서)

위에서 인용한 형사요원과 범죄분석요원의 견해는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행히 아직도 우리의 형사요원들 중에는 프로파일링 절차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루 빨리 범죄분석요원과 형사요원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2. 강력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에서 사용되는 프로파일링 체계는 한국의 범죄 데이터에 기초하여 한국 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그러한 프로파일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범죄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죄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가 많이 수월해졌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내의 모든 일선 수사기관에서 입력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다면 과학적인 프로파일링을 위한 첫 번째 기반은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⁹⁷⁾

특히 경찰청에서 운용중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Criminal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상에 축적된 범죄통계 자료가 통계적 분석을 위한 다양한 변인들을 예정하지 않아 분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에 범죄분석관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에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들과 범죄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⁹⁸⁾

그에 앞서 범죄통계의 기본자료인 수법원지나 피해통보표의 정보입력 대상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하고, 정보의 입력도 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범죄분석관 업무의 전문화와 체계화

현재 범죄분석요원들은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필요시 현장감식 등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링 업무가

97) 박광배, 배현정, Op.cit p.20.

98) 이웅혁,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의 기본 가정에 대한 타당성과 기법의 유용성에 대한 회고적 평가: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제11권 제2호(2005) p.60

현장감식업무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범죄분석요원들의 고유의 업무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체 구축

현장 수사전문가, 자료수집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통계분야 전문가, 사회학·범죄심리학·정신분석학자·범죄학자·경찰교육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프로파일링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일반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에 반해, 이들이 현장의 자료를 접근하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안으로 FBI 나 캐나다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 인턴쉽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경찰 측에서는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학 측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문가 그룹과 경찰청 간의 연구-현장 연계를 강화하며 현장수사실무자와 범죄분석자간의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시너지 효과 생길 것이다.

5. 유능한 범죄분석요원의 선발육성과 교육 강화

가. 프로파일러의 자질을 갖춘 요원의 선발 육성

수많은 소설, 영화, TV 프로그램 속에서 프로파일링이 비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런 가상의 세계에서 경찰은 언제나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현실에선 프로파일링이 것처럼 극적이지도 항상 정확하지도 않다. 사건의 해결여부는 프로파일러의 수사경험, 법과학·행동과학에 대한 훈련, 그리고 이미 알려진 범죄자들의 특징에 대한 축적된 정

보 등을 조합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의 능력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로파일러의 자질을 논함은 현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아버지라 불리는 Gross로 부터이다. 그는 일찍이 「범죄수사」라는 책을 통하여 살인, 절도, 강간, 방화 등의 범죄자를 프로파일링하는 방법과 함께 프로파일러의 자질을 소개 한 바 있다.⁹⁹⁾

우리 경찰은 아래와 같은 프로파일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경찰에 지원하고, 입직 후에도 그러한 자질을 스스로 계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1) 풍부한 에너지

프로파일러는 늘 풍부한 에너지로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 들 때까지 활기찬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다.

(2) 끝없는 탐구심

프로파일러는 언제든지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프로파일러가 사건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을 범인으로 그릴 때, 자신이 하는 일에서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3) 사업가적 마인드

프로파일러가 다루어야 하는 물적, 인적 자료는 실로 방대하다.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범죄자를 추정하기 위한 계획과 기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모든 일은 사업가적 두뇌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

99) P. E. Cook & D. L. Hinman, "Criminal Profiling: Science and Art", in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Vol. 15 No. 3, August 1999. p.230.

(4) 수용적인 자세

프로파일러는 수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약 프로파일러가 사건의 시작과 결과에 관련된 물적, 인적 증거물들을 취급하면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은 제외시키고 좋아하는 것만을 다루게 된다면, 사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자료의 반쪽만 취급하는 셈이다.

(5) 정확성

프로파일러는 범죄행동의 원인과 증거들을 조사하면서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한다. 귀찮으니까 하는 마음에서 대충 혹은 어림짐작으로 얻어지는 자료는 엉터리 결과를 낳는 것은 물론이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6) 높은 교육 수준

프로파일러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져야 한다. 프로파일러가 사건의 증거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보다는 종합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7) 멋진 추측력

프로파일러는 멋진 추측력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추측력을 육감으로 오해하기 쉽다. 육감이란 인체의 5감(미각, 시각, 촉각, 청각, 후각)의 육체적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 감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은 자료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이기에 육감과 질적으로 다르다.

(8) 심사숙고 하는 자질

프로파일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리저리 생각의 폭을 넓히고 깊이 파면서 이해를 찾

는 사람이 성공적인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다.

(9) 겸손함

대중을 의식해서 허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사가 계속되어도 범인을 추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건을 다루며, 이런 부류의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는 장담은 모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는 호언장담을 할 여지를 갖는다. 프로파일러는 이러한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10)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지식

프로파일러는 인간본성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철학자적인 자세로 인간의 본성을 성찰하면서 피해자, 범죄자, 수사관 등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나. 범죄분석요원 교육 강화

현재 범죄분석요원 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약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만족도는 3.36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행히도 올 해의 범죄분석요원 교육과정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시켜 대폭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업무관련 교과목 신설이다.

경찰청 담당부서(과학수사계·인권보호센터), 수사학과, 범죄분석요원 1기 졸업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분석실무 6시간, 범죄심리학 7시간, 형사사진학 4시간, 피의자 면담기법 4시간, 과학수사장비운용 2시간 등 범죄분석관련 교과목 교육을 강화하였다.

둘째, 법률과목 강화이다.

범죄분석요원들이 형사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므로 형법 20시간, 형사소송법 18시간 배정하여 관련 과목 교육을 강화하였다.

셋째, 현장실습의 강화이다.

종전에는 1차 실습(경찰서 1주)후 2차 실습(경찰청 2주, 지구대 1주)이 이루어지던 것을 2차 실습 내용 중 경찰청 2주 실습을 경찰청1주, 지방청 1주 실습으로 변경 운용하게 된다.

이처럼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임용 후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형사요원들이 범죄분석요원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어떤 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분석요원들의 현장 수사 경험이 없고, 경력이 짧은 점 등으로 신뢰감이 없으며, 사건 발생 시 실제 범죄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사후 범죄분석요원이 자료만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범죄분석요원은 현장 수사경험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범죄분석요원들 대부분이 형사업무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인 만큼 범죄분석요원들이 형사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해 주는 데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제2절 결 어

본 논문 작성을 위해 실시한 범죄분석요원 및 형사요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범죄분석요원들은 대체로 현재의 직무에 만족한다고 느끼고 있으나 상급기관의 업무지원이나 형사요원들로부터의 업무협력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임용 전에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사요원들은 최첨단 수사기법으로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2/3 가량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이 효과적인 수사기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형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범죄분석요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범죄분석요원들에 대한 임용 전 교육을 보다 내실화하여 경찰업무 전반 뿐 만 아니라 범죄분석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범죄분석요원들을 관리하는 상급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범죄분석업무가 과학수사계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자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활동 중인 범죄분석요원들은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고 뿌리 내린다」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위에서 실시한 범죄분석요원들에 요구되는 자질들을 기초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염원해 본다.

- 參考文獻 -

1. 국내문헌

- 강덕지, “무동기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월간수사연구(2006.4) vol.270.
- 강신몽, “우리나라 현장검시의 개선점”, 월간수사연구(2000.10)
- 경찰청, 범죄행동분석 매뉴얼(서울: 대한 P& D, 2006)
- 권일훈, “사인확인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월간수사연구(2002. 10)
- 권창국,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2002)
- 김상철,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능력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 나상필, 살인범죄의 실태 및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박광배, 배현정,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Vol21, No.1
- 박철현,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 추정: 동래연쇄방화
사건의 사례”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2004)
- 박충민, “연쇄 및 연쇄성 살인범죄 연구”(한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의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제1권~6권, 2004년)
- 이웅혁,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의 기본 가정에 대한 타당성과 기법의 유용성에
대한 회고적 평가: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제11권 제2호(2005)
-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서울: 북카페 2006)
- 이재상, 형사소송법(서울: 박영사, 2002)
- 임준태, 강력범죄에서의 범인상 추정기법(Criminal Profiling)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제19집, 2003)
- 임준태, 강력범죄에서의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criminal profil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2003)
- 최규범, “연쇄범죄와 프로파일링 방법론 연구” 경찰학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12호) (경기도: 경찰대학, 2006)
- 최성재, 살인사건의 연관성 프로파일링연구(행동증거분석기법의 활용). 경기
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최영인 · 염건령, 범죄프로파일이론과 연쇄살인의 프로파일링

(서울: 백산출판사, 2005)

함근수, 표주연, 강덕지, 문완식 “범죄프로파일링 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96)

2. 외국문헌

- A. O. Rider. The Firesetter : A Psychological Profile,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June, July and August(1980)
- B. E. Turvey. An introduction to criminal profiling. course notes. Available from <http://www.corpus-delicti.com>
- B. E. Turvey,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ural evidence analysis(London: Academic press, 1999)
- B. Innes. Profile of a criminal mind. (Amber books : London, 2003)
- C. Campbell, "Portrait of a Mass Killer", Psychology Today 9, February 1976,
- C. Linedecker and W. Burt, Nurses Who Kill(New York : Windsor, 1990)
- D. Canter. Offender Profiles. The psychologist. January(1989)
- D. Canter & P. Larkin. The environmental range of serial rapis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1993),
- G. H. Gudjonsson & G. Copson, "The role of expert in criminal investigation", in Offender Profiling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J. L. Jackson & D. A. Bekerian, (ed) (John Wiley & Sons : New York, 1996)
- G. Kinder, Crime Victim(New York: Dell Press, 2002)
- H. Teten, Offender profiling in The encyclopedia of police science(New York: Garland, 1995)
- I. Taylor, P. Walton, I. Young, The New Criminology(New York : Harper and Row, 1973)
- J. E. Douglas.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as an Investigative Tool(1971)
- J. L. Jackson & D. A. Bekerian, Offender Profiling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 New York, 1996)
- L. Haas & J. Haas, Understanding Sexuality(St. Louis, MO: C. V. Mosby

- 1990).
- L. Sherman, "Attacking Crime; Policing and Crime Control", in M. Tonry and N. Morris, eds., *Modern Policing*(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L. Sherman, P. Gartin, and M. Buerger, "Hot Spots of Predatory Crime; Routine Activities and Criminology of Place", *Criminology* 27
- M. Neitzel, *Crime and its Modification;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Elmsford, NY : Pergamon Pressing Co., 1997)
- P. E. Cook & D. L. Hinman, "Criminal Profiling: Science and Art", in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Vol. 15 No. 3, August 1999.
- P. Brown. *Killing for sport: Inside the minds of serial killers* (Beverly Hills : New Millennium Press, 1999)
- P. Jenkins, *Using Murder: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rial Homicide*(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4)
- P. P. Wilson & K. Soothill. *Psychological profiling : Red, green or amber?* The police journal(1996)
- R. Ault and J. T Reese. *A Psychological Assessment of Crime Profiling*,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Vol. 49, No. 3(1980)
- R. M. Holmes, "A Model of Personal Viloence", *Kentucky Research Bulletin* 2, 1988.
- R. M. Holmes & S. T. Holmes. *Profiling Violent Crimes*. (Sage Publication, 1996)
- R. R. Hazelwood. *Personal Communication*, (Virginia : FBI Academy 1983)
- R. Wagner, *The Criminal Profiling*(Chicago, IL: Chicago Metro Press, 1999)
- S. Egger. *The killer among us : an examination of serial murder and its investigation* (NJ : Prentice Hall, 1998)
- T. D. Miethe, R. C. McCorkel, S. J. Listwan. *Crime Profiles*(California: Rpxsbury 2006)
- V. J. Gerberth, "Psychological Profiling", *Law and Order* 29, 1981.
- V. J. Gerberth *Pratical Homicide Investigation* (New York : Elsevier 1983)
- V. J. Gerberth,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 2nd ed.(Boca Raton, FL: CRC Press, 1993)

- V. J. Gerberth.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 (Boca Raton : CRC Press, 1996)
- W. Petherick. Criminal Profiling : How it got started and how it is used. Available from <http://www.crimelibrary.com/criminology/criminalprofiling2>.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78)

3. 자료

경찰청, 2003 범죄분석
경찰청, 2004 범죄분석
경찰청, 2005 범죄분석
경찰청, 경찰백서(2006)
박주연, “연쇄살인범 당신 가까이에 있다”, 인터넷 경향신문 미디어 칸(2006.8)
세계일보 2006. 4. 24.자
중앙일보 2006. 12. 5.자
조선일보 2006. 2. 8.자
이승녕 등 5인 공저. 국어대사전(1990)
<http://faculty.ncwc.edu/toconnor/401/401ects.htm>
<http://kr.blog.yahoo.com/ihyl6374/2326>
<http://www.criminalprofiling.ch/introduction.html>
http://www.crimelibrary.com/criminal_mind/profiling/profilings2/1.html?sect=20
<http://www.m-w.com/dictionary/profile>

부록

설문지1(범죄분석요원용)

프로파일링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경찰에서 2005년부터 도입, 운용중인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의 운용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을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하나로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적 분석에만 사용될 뿐이며,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전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진솔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4월

다음 사항은 통계분류 목적으로만 묻는 질문이오니 조금도 개의치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Q1. 성 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BQ2. 나 이	<input type="checkbox"/> 1) 20대	<input type="checkbox"/> 2) 30대	<input type="checkbox"/> 3) 40대	<input type="checkbox"/> 4) 40대 이상
BQ3. 근 무 처	<input type="checkbox"/> 1) 서울 <input type="checkbox"/> 4)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2) 경기 <input type="checkbox"/> 5) 기타	<input type="checkbox"/> 3) 광역시	

다음 질문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1. 업무 만족도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6	7

문1-1. 상사로부터의 업무지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문1-2. 상급기관의 업무지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문1-3. 형사요원들로부터의 이해나 업무협력에 만족하십니까?	
문1-4. 당신의 담당직무에 만족하십니까?	

문 2.
근 무 환 경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6	7

문1-1. 임용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이수한 교육은 만족하십니까?	
문1-2. 임용 후 상급기관에서 주관 실시한 교육은 만족하십니까?	
문1-3. 현 근무부서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기자재 등 근무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문1-4. 현재 수령하고 있는 보수(시간외 수당 포함)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문 3.
업무프로세스

매우불만	불만	약간불만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1	2	3	4	5	6	7

문1-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 매뉴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문1-2. 현재 제공되고 있는 범죄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문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무성과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문4.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이 최첨단 과학수사 기법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제언을 한다면?

설문지2(형사요원용)

프로파일링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경찰에서 2005년부터 도입, 운용중인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의 운용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을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하나로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적 분석에만 사용될 뿐이며,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전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진솔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2월

다음 사항은 통계분류 목적으로만 묻는 질문이오니 조금도 개의치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Q1. 성 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BQ2. 연 령	<input type="checkbox"/> 1) 20대	<input type="checkbox"/> 2) 30대 <input type="checkbox"/> 3) 40대 <input type="checkbox"/> 4) 50대
BQ3. 형사근무경력	<input type="checkbox"/> 1) 3년미만 <input type="checkbox"/> 4) 5-10년 <input type="checkbox"/> 7) 20년이상	<input type="checkbox"/> 2) 3-5년 <input type="checkbox"/> 3)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5) 10-15년 <input type="checkbox"/> 6) 15-20년
BQ4. 근무처	<input type="checkbox"/> 1) 본청	<input type="checkbox"/> 2) 지방경찰청 <input type="checkbox"/> 3) 경찰서

다음 질문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1. 프로파일링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문2. 범죄 수사과정에서 범죄분석요원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했거나 요청 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문3. 프로파일링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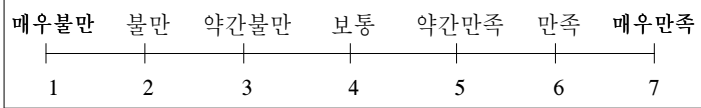
☐ 아니오

문4. 위 문3에 대하여 예로 답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피의자 식별 ☐ 수사방향의 결정 ☐ 사건에 대한 이해 증진

☐ 수사관의 판단을 공고히 함 ☐ 심문 설계에 도움

문5.
프로파일링 만족도



문1-1. 프로파일링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문1-2. 수사간부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접근태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문1-3. 범죄분석요원들의 업무협력 태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문 6.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이 최첨단 과학수사 기법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제언을 한다면?

[illegible]